

時事資料 第43號

# 統一教育



統一研修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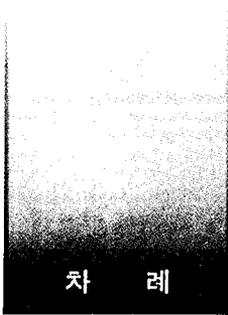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DIVISION OF THE PHYSICAL SCIENCES  
DEPARTMENT OF CHEMISTRY

1954

1955

1956

1957



北韓動向

對內動向

- 勞動黨 創建 45 周 기념행사 개최 ..... 7
- 黨創建 45 周 관련 — ..... 12
- 경제실적 발표내용 분석 — ..... 12
- 全國 財政·銀行 일군大會 개최 ..... 23
- 改革 外風에 金正日 후계기반 동요 ..... 29
- ◀ 토막소식 ▶ 北韓 最高의 詩 「묘향산 가을날에」 ..... 34

對南動向

- 「高麗聯邦制」제의 10 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 개최 ..... 39
- 「朝統平 國際連絡委」呼訴文 발표 ..... 42
- 「제 2 차 고위급회담」에 대한 편향적 보도 일관 ..... 44
- ◀ 토막소식 ▶ 「망명객 마을」· 「기쁨組」 ..... 51

對外動向

- 北韓-日本間 관계 개선 ..... 55
- 北韓-蘇聯間 「인론공방전」 심화 ..... 64
- ◀ 토막소식 ▶ 압록강 다리를 「朝·中 親善의다리」로 改名 ..... 68

## 共產圈 및 周邊動向

- 蘇聯의 市場經濟 추진 동향 ..... 71
- 再編되는 國際秩序와 韓半島 ..... 75

## 資 料

- 東·西獨法の 異質성과 法統一에 있어서의 문제점 ..... 85
  - 北韓映畫의 現況 ..... 91
  - 北韓音樂의 現況 ..... 98
  - 北韓의 외국관광객 誘致사업실태 ..... 107
  - 金日成 가계우상으로 얼룩진 北韓地名 ..... 113
- 北韓 및 周邊動向 日誌 ..... 118

## 統一教育專門委員協議會動靜

- 統一教育專門委員協議會 象徴마크制定案 ..... 169
- 專門委員活動狀況 ..... 177
- 統一研修院 新築廳舍 移轉案内 ..... 181

# 北 韓 動 向



# 對內動向

---

- 勞動黨 創建 45 周 기념행사 개최

— 黨創建 45 周 관련 —  
경제실적 발표내용 분석

- 全國 財政·銀行 일군大會 개최

◀ 토막소식 ▶ 北韓最高의 詩 「묘향산 가을날에」

- 개혁 외풍에 金正日 후계 기반 동요



對內動向

勞動黨創建45周 기념행사개최

1. 關聯 動向 概要

가. 口 號

- 朝鮮 勞動黨 創建 45 돌을 높은 政治的 熱意와 빛나는 노력적 成果로 맞이하자!

나. 紀念 論·社說

- 높은 革命的 熱意를 발휘하여 社會主義 건설에서 더 큰 양양을 일으키자. (10.3, 勞動新聞 社說)
- 金正日, 朝鮮 勞動黨은 우리 人民의 모든 勝利의 組織者이며 嚮導者이다 題下 論文 發表 (10.4, 勤勞者)
- 우리黨을 不敗의 黨으로 강화 발전시킨 빛나는 嚮導 (連續問答)
- 靑史에 기리 빛날 黨創建 史蹟館 (連續 參觀記)

다. 紀念行事

- 中央 寫眞 展覽會 (10.2), 國家 美術展覽會 (10.4)

中央研究討論會 (10.4) , 主體思想 國際討論會 (10.7)  
映畫 上映週間 開幕 (10.7) , 平壤市 青年學生 10 萬 燻불  
行進 (10.9)

- 中央 慶祝 報告大會 (10.9)
  - 參席者 : 金日成, 金正日 등 黨·國家 指導者와 외국대표  
단 (126 個國, 276 個 대표단 및 대표)
  - 報 告 : 李鍾玉 (副主席)

報告內容 (要旨)

◀ 對內問題 ▶

- 北韓式 社會主義 讚揚
  - 우리나라에 건설된 社會主義는 主體思想을 具現하고 있는  
우리식의 독특한 社會主義이며 가장 優越한 社會主義임.
- 黨의 領導的 역할 강화
  - 革命의 參謀部인 黨을 강화하며 黨의 領導的 역할을 끊임  
없이 강화하여야 함. 社會主義 建設에 대한 政治的 領導  
를 강화하는 것은 오늘 우리黨 앞에 나서고 있는 주요한  
任務임.

◀ 對外問題 ▶

- 社會主義·非同盟 國家들과의 친선강화
  -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社會主義 나라 人民들과 불력 不加

擔 나라 人民들을 비롯한 世界 進步的 나라 人民들과 굳  
게 단결하고 親善 協調關係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

### ◀ 對南 및 統一問題 ▶

- 平和統一 實現의 先次的 문제는 緊張緩和와 平和保障
  - 韓半島에서의 恒久的이며 鞏固한 平和는 美軍 撤收와 南  
北軍縮에 의해서만 擔保될 수 있음.
- 콘크리트 障壁 除去, 國家保安法 철폐, 民主人士 석방
  - 콘크리트 障壁을 허물고 國家保安法 철폐, 訪北人士를 석  
방하고 自由往來와 全面 開放을 위한 實際的인 조치를 취  
해야 함.
- 單一 議席에 의한 南北韓 유엔 加入
  - 統一이 實現되기 전에 유엔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하나의  
議席을 가지고 共同으로 들어가야 함.
- 全民族的 統一戰線 형성과 全民族的 對話 실현
  - 南과 北, 海外的 모든 政黨 社會團體와 여러 조직들 各界  
各層 人士들을 망라하는 全民族的인 統一戰線을 形成하  
고..., 南과 北, 海外的 各黨, 各派, 各界 各層人民들 사  
이의 民間對話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함.
- 南北高位級 會談에도 誠意 있는 努力 繼續
  - 이미 좋게 출발한 南北高位級會談이 尖銳한 政治 軍事的 대  
결상태를 緩和하고 祖國統一의 유리한 前提를 마련하도  
록 繼續 誠意있는 노력을 다할 것임.
- 高麗聯邦制에 의한 統一

- 一 統一問題를 가장 빨리 解決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高麗聯邦制共和國 創立方案을 실현하는 것임.

## 2. 分析 및 評價

- 北韓은 朝鮮共產黨 西北 5道 黨責任者 및 熱誠者大會(1945. 10.10-13) 採擇 決定書에 따라 창설된 朝鮮 共產黨 北朝鮮 分局을 勞動黨의 母體로하여 每年 10.10을 黨創建 紀念日로 해오고 있음.
- 今番 北韓 勞動黨 創建 45周年 행사는 최근 蘇聯을 비롯한 東歐諸國에서의 改革·開放化로 結果된 共產黨의 崩壞 속에서 개최된다는 點에서 對內외의 관심을 모아 왔음.
- 금번 黨創建 45돌 紀念行事는 행사 규모 및 내용면에서 몇 가지 특징을 내보이고 있는 바, 前例 없는 金日成·金正日 父子의 黨創建 慶祝報告大會(10.9) 參席과 대규모 外國代表團(126個國, 276個 代表團 및 代表)의 招請으로
  - 一 첫째, 從來 없던 金日成·金正日 父子의 黨創建 慶祝 報告大會 參席은 이들 중심의 黨의 統一團結 誇示意图로 분석됨.
  - 一 둘째, 40周年 黨創建 行事時(85.10.10)에 없었던 外國 代表團 및 代表의 大學 招請은 현재 北韓이 처한 外交的 孤立을 糊塗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一 금번 招請된 外國 代表團의 경우 中國 共產黨과 쿠바 共產黨 代表단을 除外하고는 지역적으로 아프리카 中心의 第3世界國家 代表團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大部分이 政府代表團이 아닌 勤勞團體 대표단과 親北團體組織 대표들이라는 점에서 현재 北韓이 처한 外交의 디램마의 斷面을 읽게 해주고 있음.

- 한편, 10.9 개최된 中央慶祝報告大會 副主席 李鍾玉의 報告에서는 主體思想에 立脚한 北韓式 社會主義制度的 優越性을 또다시 강조하면서 最高人民會議 第9期 1次會議 金日成 施政演說 (5.24) 에서 提示된
  - 一 緊張緩和와 統一을 위한 平和的 環境 마련
    - 駐韓美軍 撤收, 南北軍縮, 戰爭演習 中止 및 核武器撤收
  - 一 自由往來와 全面開放 實現
    - 콘크리트 障壁 除去, 國家保安法 철파, 訪北人士 석방
  - 一 平和 統一에 유리한 國際的 환경을 마련하는 원칙에서 對外關係 발전
    - 單一議席에 의한 유엔 加入
  - 一 統一을 위한 對話
    - 南과 北, 海外의 各黨, 各派, 各界各層 人士들간의 民間對話 開放
  - 一 全民族的 統一戰線 등 이른바 祖國統一 5個方針을 되풀이 主張하였음.
- 이와 같은 點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北韓은 狀況變化와 必要에 따라 當局間的 接觸을 持續해 나가되, 기본적으로는 이른바 祖國統一 5個方針에서 闡明된 政策基調를 계속 堅持해 나갈 것으로 판단됨.

## 黨創建 45周 관련

# 경제실적 발표내용 분석

### 1. 報道要旨

#### 가. 總量部門

- 지난 45년간 수천개의 現代的 工場·企業所 건설로 工業 總生産額은 1946년에 비해 1989년에 554 倍로 成長
- 金正日은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메시지, 매 단계에서…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전체 인민을 조직 동원하여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세인을 경탄 시키는 기적과 변혁을 창조할 수 있었다”고 指摘
- 『戰後 人民經濟 復舊 3 個年計劃』은 2年 8 個月, 『第 1 次 5 個年計劃』은 2年 반에 遂行되고 『第 1 次 7 個年計劃』, 『 6 個年計劃』, 『第 2 次 7 個年計劃』들도 成果的 으로 完遂

#### 나. 部門別 實績

##### ◀ 에너지 部門 ▶

- 年間 電力 生産量 555 億 Kwh, 1989 년도 石炭 生産量 8,500 萬噸

◀ 金屬工業部門 ▶

- 最近 年間 8 호제강소, 평북제련소 등 金屬工場의 操業으로 年間 鋼鐵 生産量 700 만톤으로 增大

◀ 機械・建材工業部門 ▶

- 部門構造 더욱 完備
- 年間 10 억대 生産能力의 『시리카트』 벽돌工場들 건설
- 1989 년 시멘트 生産量 1,350 만톤

◀ 化學工業部門 ▶

- 해마다 560 만톤의 化學肥料와 많은 化學纖維, 合成樹脂 등 各種 化學製品 생산

◀ 輕工業部門 ▶

- 平壤, 惠山綜合紡織工場, 咸興毛紡織工場 등 큰 규모의 中央 輕工業工場들과 地方産業工場들 건설
- 郡 平均 地方工場 數 25 個 以上

◀ 水産業部門 ▶

- 1 만 4 천톤 규모의 加工母船과 3,750 톤의 船尾 트롤선 등 現代의 배들로 裝備된 水産基地들이 완성되고 養殖事業에서 轉換이 일어나 水産物 生産량이 늘어났음.

◀ 交通・運輸 ▶

- 해주, 화성, 이천, 세포, 혜산, 만포청년線을 비롯 새 철길이

많이 건설되어 鐵道 總延長은 1946년에 비해 8,400여리가 더 늘어났으며, 350여개의 驛이 新設됨.

- 鐵道 電氣化率은 90% 이상임.
- 平壤-元山, 平壤-開城 등 高速道路가 건설되고 수많은 港들이 現代化

#### ◀ 農業部門 ▶

- 自然改造事業: 干潟地 開墾으로 130여개의 섬이 없어지고 海岸線이 1,600여리 減少, 백두산천리벌, 백암등판, 신계미륵등, 다구리벌 등 불모지를 알곡 生産 基地化
- 水利化: 貯水池 1,700餘個, 揚水場 25,800여개, 江河川 堤防 14,400여km, 灌溉水路 40,000여km
- 機械化: 밭임당 100町步當 트랙터 臺數 7臺 水準 (平地帶), 논 100町步當 모내는 機械 臺數 6.1臺
- 化學化: 町步當 化學肥料 施肥量 2톤 以上
- 果樹園: 數十萬町步의 과일 生産基地가 꾸려짐.

#### ◀ 林業部門 ▶

- 山林 造成事業을 대대적으로 벌려 해마다 많은 통나무 生産

#### ◀ 科學·教育·文化·保健部門 ▶

- 大學 270餘個, 專門學校 469個
- 10,000餘個의 全教育網에서 人口의 1/4 以上이 國家負擔으로 공부
- 勤勞者 文化藝術 水準 高等中學校 卒業程度 以上, 인텔리系

列 200 萬名 계선으로 치달아 오르고 있음.

- 現代的 劇場 35 個, 映畫館 5,000 餘個
- 治療豫防機關數 1946 년에 비해 95 배, 醫師 및 準醫師 數 1945 년에 비해 194 倍 成長, 平均壽命 74.3 살

## 2. 發表된 經濟實績 統計 分析

### ◀ 農業部門 ▶

- 最近 生産實績 不振으로 年間 穀物 生産量의 발표를 忌避한 가운데, 3次 7個年計劃의 目標值인 1,500 만톤을 향해 『내 달리고 있다』라고만 발표하였음.
- 農村 水利化·機械化·化學化와 關聯, 營農施設統計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었으나 그동안의 間歇的인 北韓發表 統計와 比較해 볼 때,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서 80 년대 後半부터 農業部門의 施設投資가 不振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음.

區 分	1984	1987	1989	當院推定值
貯 水 池	1,700여개	1,700여개	1,700여개	營農施設 統計는 北韓 發表 值를 그대로 活用하고 있음.
揚 水 場	23,000여개	25,210여개	25,800여개	
江 河 川 堤 防	—	—	14,400여km	
灌 溉 水 路	—	40,000여km	40,000여km	
100町步當트랙터	7대	7대	7대	
保 有 (平地帶)	—	5.5 대	6.1 대	
100町步當移秧機	—	—	—	
保 有	—	—	—	
町步當化學肥料	1.5톤이상	2 톤이상	2 톤 이상	
施 肥 量	—	—	—	
果 樹 園	—	50 萬町步	數十萬町步	

◀ 에너지 部門 ▶

- 北韓은 장자강, 강제청년, 대동강, 태천 등의 水力發電所 및 평양, 북창, 청천강 등의 火力發電所, 그리고 많은 中小型發電所의 建設·操業으로 年間 電力 생산량이 555 억 Kwh 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誇張 發表된 것으로 評價됨.
- 北韓 發表 電力生産 統計에 依據한 時系列 分析 結果, 6 個年 計劃 및 2 次 7 個年 計劃期 ('71-'84 年) 에는 年平均 8.2% 의 增加勢를 보였으나, '86-'89 年 期間中에는 年平均增加率 이 2.2 %로 급격히 낮아지는 趨勢를 나타내고 있음.

區 分	單 位	1970	1977	1984	1986	1989
發 電 量 (當院 推定值)	Kwh ( " )	165 (132)	286 (194.1)	498 (245)	520 (253)	555 (291.7)
年平均 增加率	%	—	8.2	8.2	2.2	2.2

※ 註 : 年平均 增加率은 當該年度의 左側年度對比 年平均 增加率임.

- 北韓의 심각한 에너지 부족문제와 관련, 1989 년도 石炭 生産量 (8,500 만톤) 역시 誇張 發表된 것이며 1986 년에 發表한 7,800 만톤을 基準으로 한 3 년간의 年平均 增加率은 2.9 %에 불과한 것으로 分析되고 있음.

※ 當院의 石炭生産 推定值 : 4,330 만톤

## ◀ 金屬・機械工業 部門 ▶

- 金屬工業部門에서는 8 호제강소, 평북제련소 등 많은 金屬工場들의 操業으로 年間 鋼鐵 生産량이 700 만톤에 이르고 있다고 하나, 이는 1984 년의 740 만톤에 비해 40 만톤이 감소된 것이며 1986 년도의 生産량 673 만톤에 비하여 年平均 1.3 %의 緩慢한 增加速度를 보이고 있는 것임.

(單位 : 만톤)

區 分	1977	1984	1986	1989
鐵 鋼 (當院 推定值)	480 (382.9)	740 (429.7)	673 (430)	700 (594)

※註 : 當院 推定値는 生産能力 基準임.

- 이에 따라 關聯産業인 機械工業部門은 뚜렷한 實績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熙川工作機械, 4.3 工場, 勝利自動車 등 北韓의 대표적인 工場・企業所를 열거하면서 機械工業이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만 보도하는데 그쳤음.
- 그러나 北韓이 최근 10 월 5 일 自動化綜合工場을 爲始하여 特殊精密工作機械 및 電子自動化器機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注目됨.

## ◀ 建材・化學工業 部門 ▶

- 北韓은 이번 報道를 통해 대규모의 시멘트生産基地들과 中小規模의 시멘트工場들이 到處에 建設됨으로써 1989 년도에 1,350 만톤의 시멘트를 生産하였으며, 『시리카트』벽돌 生

산 능력이 10 억매에 이르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음.

- 이는 北韓의 産業部門中 가장 높은 增加趨勢를 나타낸 것으로 1989 年度에 北韓이 『平祝』開催 準備를 비롯하여 工場建設, 住宅建設 등 건설부문에 力量을 集中함으로써 시멘트 및 벽돌 需要가 急增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分析됨.
- 그러나 北韓 발표의 시멘트 生産량을 時系列 分析하여 보면 1970-75 年 期間中에는 年平均 11.2%로 높은 增加勢를 보이던 것이 1986-89 年 期間中에는 年平均 4.0%로서 增加速度가 1/3 수준으로 현저히 鈍化되는 趨勢를 나타내고 있음.

(單位 : 만톤)

區 分	1970	1975	1986	1989
시멘트 生産量 (當院 推定值)	400 (400)	680 (580)	1,200 (904)	1,350 (1,178)
年平均 增加率	—	11.2	5.3	4.0

※ 註 : 年平均 增加率은 當該年度의 左側年度 對比 增加率임.

當院 推定值는 生産能力 基準

- 化學工業部門에서 化學肥料를 제외한 化學纖維, 合成樹脂 등 各種 化學製品의 生産實績 統計는 발표하지 않았음.
- 化學肥料 生産量은 1989 年 現在 560 만톤으로서 이는 1986 年 520 만톤을 生産한 이래 年平均 2.5%의 低調한 增加勢를 나타내고 있는 것임.

(單位 : 만톤, %)

區 分	1978	1984	1986	1989
化學肥料 生産量 (當院 推定値)	369 (61.1)	468 (77)	520 (70.2)	560 (351.4)
年平均 增加 率	—	4.0	5.4	2.5

※註 : 1986 年까지의 當院 推定値는 成分含量 基準 生産能力이며, 1989 年度는 物量 基準임.

#### ◀ 輕工業 및 輸送部門 ▶

- 輕工業部門에 있어서 平壤綜合紡織工場, 惠山綜合紡織工場, 咸興毛紡織工場 등 中央輕工業工場外에 地方産業工場 數가 郡마다 平均 25 개 이상에 달한다고 강조함으로써 北韓 住民의 生必需品 供給은 주로 零細한 地方産業工場에 依存하고 있음을 示唆하고 있음.

— 總 地方産業工場 數 : 3,700 個 以上

(郡 平均 25 個 以上 × 148 個 郡)

- 輸送部門에서 鐵道 總延長은 1946 年の 鐵道 總延長 3,815 km를 감안할 때, 1989 年 현재 7,175 餘 km이며 新設된 驛 區間當 平均距離는 9.6 餘 km, 鐵道 電氣化를 위한 電氣機關車 牽引機種은 90 % 以上으로 報道되었음.

※ 當院의 鐵道 總延長 推定値 : 5,024 km

- 그러나 北韓은 3 年전인 1986 年에 鐵道 總延長이 8,533 km 에 달한다고 발표하는 등 統計誤差가 심해 發表統計의 信憑性

問題가 提起되고 있음.

### ◀ 社會·文化部門 ▶

- 教育部門에서 1986년 大學數가 235 個校이던 것이 1990년 現在 270 餘個校로 35 個校가 增加한 반면, 專門學校數는 같은 期間에 473 個에서 469 個로 減少되었으며 高等中學校, 人民學校, 幼稚園 등은 모두 9,260 餘個로 分析結果 나타났음.
- 北韓은 이번 報道를 통해 全教育網에서 總人口의 1/4 以上이 『國家負擔』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는 바, 이는 北韓 總人口 2,137 萬名을 基準으로 할 경우 北韓은 매년 534 萬名 以上の 學生에 대한 教育負擔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保健分野에서 治療豫防機關數는 1946년에 비해 95 倍 (8千餘個), 醫師 및 準醫師數는 1945년에 비해 194 倍 (10 萬餘名) 으로 발표함으로써 1 個의 治療豫防機關當 醫師 및 準醫師數는 10 餘名 水準으로 평가되었음.

### 3. 綜合分析 및 評價

- 報道 論調에 있어서 이번 報道가 黨創建 45 周年 紀念報道로서 北韓으로서는 중요한 政治行事的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金父子 讚揚 修飾語를 省略하는 등 從來의 報道 論調에 비해 干결한 語句를 사용한 것이 특징임.
- 報道 내용상으로는 黨大會 또는 經濟計劃 終了時期에 발표해 오던 經濟實績 발표의 慣例와는 달리 異例的으로 前年度의 統

計數値와 함께 포괄하고 있었으며, 現在 推進中인 3次 7個年計劃의 成果와 90年度 經濟施策方向인 『增産과 節約鬭爭』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음.

- 또한, 1946년 以後의 經濟實績이 金日成 治績임에도 불구하고, 金日成의 『敎示』가 아닌 金正日의 『指摘』內容만을 포함시키는 등 지난 『財政·銀行部門 일꾼大會』('90.9.13) 이후 北韓 경제운용에 있어서 대부분의 實權을 金正日이 掌握하고 있음을 確認시키고 있음.
  - 一 金正日 『指摘』內容: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매시기, 매단계에서……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세인을 경탄시켜 기적과 변혁을 창조할 수 있었다.』
- 具體的으로 發表된 産業統計는 發電量, 石炭, 鋼鐵 등 重工業 분야에 置重하고 있었으며, 輕工業, 農業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이 産業施設, 目標値를 羅列, 提示함으로써 구체적인 생산 실적은 발표를 忌避하였음.
- 또한, 北韓 발표의 經濟實績統計에 기초한 時系列 分析 結果를 보면 統計値 自體가 誇張發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2次 7個年計劃 ('78-'84) 이래 經濟實績이 현저히 低下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최근 北韓經濟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반영시키고 있음.
- 결론적으로 이번 報道는 黨創建 45周年을 기해
  - 一 對內外에 北韓式 社會主義體制의 優越性을 誇示하는 한편,
  - 一 黨運營에 대한 金正日의 實質的 역할을 可視化시키는 동시에

一 沈滯된 北韓經濟의 位相을 統計的 便法을 통해 格上시켜 보려는 意圖로 평가됨.

※ 計劃期間別 工業總生產額의 年平均 成長率 (北韓發表 基準)

期 間	戰後復舊 3 個年計劃 ( '57-'60 )	7 個年計劃 ( '61-'70 )	6 個年計劃 ( '71-'76 )	2 次 7 個年計劃 ( '78-'84 )	( '85-'89 )
成長率	35.9 %	13.0 %	16.2 %	11.9 %	5.1 %

## 全國財政·銀行일군大會 개최

### 1. 行事 概要

北韓은 '90. 9.13, 인민문화궁전에서 黨·政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全國 財政·銀行 일군大會』를 개최하였음.

- 일시 및 장소 : '90. 9.13, 평양 인민문화궁전
- 주요 참석인사 : 이종옥 (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 겸 부주석 )  
연형묵 (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 겸 총리 )  
한성룡 (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 )  
최영림 (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 겸 국가  
계획위원장 )  
김복신 (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 겸 부총  
리, 경공업위원장 )  
강희원 (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 )  
박남기 ( 당 중앙위 비서 )  
김창주 ( 정무원 부총리 )  
윤기정 ( 정무원 재정부장 )  
정성택 ( 중앙은행 총재 )

- 회의내용 : 金正日의 서한(『財政·銀行事業을 改善 強化할 데 대하여』) 전달과 이 서한에 기초한 총리 연형묵의 보고 및 토론 전개

## 2. 金正日 書翰 및 延亨默 報告 要旨

### ◆ 金正日이 제시한 주요 과업

- 국가예산의 합리적 편성 및 철저한 집행문제
- 공장·기업소 재정관리사업의 개선문제
- 화폐유통을 공고화 하는 문제
- 재정 총화 및 재정 통제를 강화하는 문제

### ◆ 연형묵 보고 요지

- 국가예산의 합리적 편성 및 철저한 집행
  - 증산과 절약으로 모든 예비자원을 최대한 동원
  - 국가예산 편성방법 개선 및 엄격한 예산집행 규율 확립
  - 인민경제비 및 생산적 건설 투자의 우선적 보장
  - 예산 관리기관의 기구 축소 및 사무 간소화 적극 추진
- 공장·기업소 재정관리사업 개선, 강화
  - 독립채산제 및 대안의 사업체계 원칙에 따른 재정관리
  - 원가, 가격, 이윤 등 경제적 공간들의 합리적 이용
  - 위원회, 부 등 중앙기관과 연합기업소, 재정관리부서 역할 제고

※ 黨 中央委 6기 제 14차 회의 결정인 매년 공업부문에서 2%, 건설부문에서 3% 등 원가절감 실현

- 화폐유통의 공고화를 위한 은행 역할 제고
  - 현금유통규율 준수 및 적정통화 유통량 보장
  - 당의 방침인 지방별 현금유통책임제 관철로 지방이 필요로 하는 현금을 자체수입으로 원만히 보장
  - 저금·보험사업을 균중적 운동으로 전개
  - 화폐구매력 제고를 위해 상품보장사업 강화
  - 무현금 유통의 합리적 조직과 “원”에 의한 기업 경영통제 강화
  - 사회주의 노동보수주의 및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르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
  - 고정재산 등록관리 철저
- 무역은행 역할 제고 및 엄격한 외화유통 규율 확립
  - 외화의 무역은행 집중 및 외화는 『수령』만 쓰도록 하는 규율 확립
  - 국내에서의 외화유통 및 기업간 외화거래 엄격히 통제
  - 국제 금융시장 적극 진출로 외화획득 증대
- 재정 통제 강화
  - 재정·은행기관들의 재정규율, 재정총화, 재정검열기능 강화
  - 2급 이상 공장·기업소 2-3년에 한번씩 재정검열 제도화

### 3. 分析·評價

#### ◀ 經濟面 ▶

- 북한은 同行事를 今年度 金日成 新年辭 및 黨 中央委 第6 期 17次 全員會議 결정인 증산과 절약투쟁에서 제기되는 財政·銀行部門의 課業 討議에 목적을 두었음.
- 延亨默 보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경제는 財政·金融 部門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음.
  - 첫째, 歲入不振 등 財政計劃의 차질과 자금부족으로 인한 경제건설사업 추진의 애로 심각
  - 둘째, 화폐공급량과 물자공급량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화폐유통의 不圓滑
  - 셋째, 物資不足 및 外貨流通 규율의 弛緩으로 인한 不法의인 外貨流通事例 증대 등
- 금번 대회는 북한이 당면한 경제위기 해결방안으로 재정·은행부문의 종합적 管理改善 方案을 모색한 것으로서, 이는 향후 경제관리부분에서 體制危機를 招來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政策變化를 시도할 징후로 판단됨.
  - 첫째, 비생산적 건설의 억제와 생산적 건설투자의 우선보장
  - 둘째, 예산 관리기관의 축소 및 사무 간소화
  - 셋째, 공장·기업소 재정관리에 원가, 가격, 이윤 등 市場經濟原理의 적용 확대 강화
  - 넷째, 適正通貨量 보장을 위해 지방별 現金流通責任制의

강화 및 저금, 보험 등 주민 저축운동 전개

- 다섯째, 무역은행을 통한 국제 금융시장 적극 진출 등 외자도입 노력 강화

◀ 對內政治面 ▶

- 연형묵 보고내용을 보면, 前半部는 형식상 항일투쟁시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재정·은행부문 정책 및 실적을 金日成의 治績으로 總和하면서도 後半部에서 金正日 書翰에 기초한 종합적 관리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김정일의 서한을 “사회주의 재정이론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한 불멸의 총서”로 찬양
- 이는 이번 행사가 경제부문에서도 金日成 時代를 마감하고 金正日 主導下의 對內外 經濟政策 轉換契機를 마련, 당면한 경제위기를 타개해 나가려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북한은 政治·文化部門에 이어 經濟部門 全般에 걸쳐 金正日의 領導力을 부각, 權力承繼를 위한 준비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별첨 : 주요 용어 해설 ■

- 半獨立採算制 : 주로 비생산 기업이나 기관에 적용되는 독립채산제의 한 형태로 기업의 지출중 일부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정부예산으로 충당하는 경영형태를 말함.
- 二重 獨立採算制 : 북한 공장·기업소의 경영·관리단위는 공장·기업소, 연합기업소, 관리국, 총국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연합기업소와 관리국, 총국 등은 여러 개의 단위 공장·기업소를 거느리고 있는 하나의 독립된 경영관리 단위임. 따라서 하부 단위조직인 공장·기업소가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상위조직인 연합기업소나 관리국, 총국들도 각각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면 하부 단위조직인 공장·기업소는 결국 2중으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를 2중 독립채산제라고 함.
- “원”에 의한 統制 : 북한의 공장·기업소는 모든 고정재산이 조선중앙은행에 등록 관리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공장·기업소간 거래도 원칙적으로는 물자공급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장·기업소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금결제 역시 은행 구좌에 의한 무현금 결제로 이루어짐. 따라서 은행은 공장·기업소의 계획과 계약의 이행상태에 따라 입금이나 유동자금의 공급을 통제하게 되는데 이것을 원에 의한 통제라고 하고 있음.
- 無現金 決濟 : 북한의 공장·기업소간 물자거래로 발생하는 대금수불은 원칙적으로 공장·기업소 상호간에 직접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구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있는데 이를 무현금 결제라고 함.

## 改革外風에 金正日 후계기반동요

東歐에서의 體制變革 돌풍이 있기전까지 김일성 부자세습체제는 북한사회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데 별 이론이 없다.

그러나 소련의 개혁정책이 가속화되고 특히 한·소수교가 가시화 되면서 김일성-김정일체제도 그 정통성의 위기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 김일성정권의 생성 및 존립자체가 後見人 소련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만큼, 종래 북한의 단독무대였던 東歐 사회주의 국가들의 脫이데올로기적 체제변혁과 공산종주국이자 북한의 강력한 동맹국인 소련의 對韓國수교는 그들 체제의 「유일정통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제한적인 것이었지만 동구 및 소련의 지지를 배경으로 한 그들의 「유일합법성」주장은 곧 대남적화통일의 명분으로 이용되어왔으며 그들의 종래 혁명지상주의는 바로 북한체제(김일성정권)의 존립바탕이 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1973년 金正日이 후계자로 부상된 이후 지난 89년 東歐사태가 확산되기전까지 15년간 기반을 닦아왔던 부자세습체제가 東歐 및 소련의 개혁 外風으로 인해 크게 동요되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지난해 북한 노동신문 논설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東歐사태와 관련 북한지도부가 이른바 「주체혈통론」(89.8.17)과 「반제국주의 투쟁 강화」(89.8.31)를 촉구했으며, 최근에는 金正日이 당기관지 근로자(10月號)를 통해 소위 「민족주의 중앙집권제」를 새삼 들먹이면서 당내 「이색적인 사상」

제거와 「이색분자」의 색출을 강조,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투쟁을 새삼스럽게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는 데서 東歐사태 및 소련의 급진적인 개혁여파가 북한체제의 권력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김일성독재 45년은 어쩔수 없이 인정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金正日후계 족벌체제 옹립 15년의 과정에서 抗日빨치산 출신의 원로 그룹과 신진소장그룹간의 갈등, 군부와 관리 및 당료계층간의 보이지 않는 반목, 대립이 있어왔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 ◆ 反金세력 多數 출현

문제는 反金 내지 反體制세력의 조직화로 비록 북한에서 이러한 세력간의 갈등, 대립이 집단적 행동으로 표출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反金세력의 잠재화 내지 地下化가 되어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본다면 지난 85년도에 「인민군」장성을 포함한 다수의 장교그룹이 중국으로 탈출, 망명했다는 미확인 보도와 최근 駐韓소련영사처장이 民自黨북방정책간담회에서 『김일성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여기에는 軍部 인사도 포함돼 있다』는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특히 지난 6월 루마니아구국전선의 제 2인자인 부르칸 박사가 서울에서 김일성에게 보낸 공개서한과 함께 밝힌 평양의 「反金 조직활동」주장은 북한의 지도급인사들로 구성된 모반자들이 反차우세스쿠혁명후 부르칸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反金세력의 그룹은 그 규모는 적으나 실재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

이다.

또한 금년 2월 평양 고려호텔에서 「金父子타도」전단이 발견되었다는 일본신문보도와 81년 일본화물선 선장이 원산항부두에서 「자유인민민주당」명의로 된 『무기 및 폭압지원』 요청서한을 받은 바 있다고 공개한 사실 등은 비록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사회 저변의 현체제에 대한 불만이 팽배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한편 김정일후계체제의 강화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군부내에서의 金正日의 位相정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른바 금년 5월 최고 인민회의 제 9기 1차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12명) 제 1 부위원장직을 차지함으로써 당중앙군사위원회(15명)의 수석위원직과 함께 명실공히 군의 실권을 장악했다는 점이다.

이는 시기적으로 볼 때 金正日후계의 가장 취약점으로 지목되어 온 軍部를 장악, 루마니아사태 등 東歐변혁에 따른 여파가 그들에게 미칠지도 모를 체제위기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軍部핵심 역시 노·소장그룹으로 혼합편성되어 있고 막상 金正日 체제로의 이행이 현실화되는 경우 권력재편 및 정책노선을 둘러싼 강·온파간의 대결로 군내부의 분열이 올 것이라고 본다면 軍部가 오히려 金正日체제불안의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해 東歐대변혁의 불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反金·反體制 움직임이 미동하고 있었던 징후가 엿보였으며, 이는 지난해 노동신문(89.8.17자)이 소위 「주체의 혈통

론」고수를 강변하면서 『김정일이 전당적인 투쟁으로서 우리당의 혈통에 온갖 잡탕을 뒤섞어 놓으려던 이색적 사상조류를 극복, 청산토록 하였다』라고 한데서도 당을 비롯한 軍部와 사회저변에서 현체제와 정책노선에 대한 불만세력의 표출 및 이들에 대한 숙청, 제거작업이 진행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東歐에서 급진적인 민주화변혁이 확산됨으로서 북한은 그들 후계체제의 옹호·방패 구실로 이른바 「주체혈통론」을 내세웠으나, 한·소수교 등 소련의 개혁이 북한체제의 정통성 위기로 연결되는 최근의 상황에 처해서는 「당의 혁명성」유지론을 강변해 나서기에 여념이 없다.

#### ◆ 金正日후계체제 위해 「黨혁명성」역설

특히 이와관련해서 본다면 金正日이 당이론지 「근로자」10월호에 낸 논문에서 『혁명이 전진하는 과정에서 당의 임무와 전략 전술 투쟁방법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당의 혁명적 성격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전제, 『당의 지도사상(주체사상을 가르킴)을 시대와 혁명이 전진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발전,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혁명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변하여도 지도사상에 관통되어있는 「혁명적 원칙」은 철저히 고수되어야 하며, 이와 어긋나는 이색적인 사상조류를 끌어들이서는 안된다』라고 촉구함으로써, 소련 및 東歐사태에 따른 당면하고도 절박한 과제가 체제유지문제임을 북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체제라는 개념이 사실상 혁명이라는 것과 유리될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소위 「계속혁명론」을 명문으로 한 후계체제 옹립의 간고한 계획과 전술이 「당의 혁명성」云云으로 위장, 은막되어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볼 때, 金正日체제를 위협하는 내부적 도전 세력이 조직적으로 집단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東歐사태 및 소련의 급진개혁정책으로 인한 북한의 주변환경 변화가 북한내에 파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후계체제로의 조속한 이행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지난 달 초 프랑스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訪北 사절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르노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김일성에게 권력이 집중될 것』이라는 그 자신의 전망과 함께, 북한고위층의 모인사가 『김일성주석을 포함한 4명의 지도자가 힘을 분산시키면 절대로 안된다』고 발언한 것을 들었다고 말한데서도 권력이양의 잠정적 중단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권력승계를 둘러싼 북한의 체제약화가 우려됨으로써 권력을 김일성에게 재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이 북한권력핵심부의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한반도 상황 특히 소련의 對韓國수교와 현재 진행중에 있는 남북고위급회담 그리고 북한이 적극 시도하고 있는 일본과의 수교교섭 등 북한의 대내외적 입지가 정리되는 단계에서 완전 權力승계도 공식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내외통신 713호, '90.10.12.)

● 토막소식 ●

北韓 최고의 詩

「묘향산 가을날에」

北韓의 시문학(詩文學) 40여년사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는 작품은 金日成이 창작했다는 「묘향산 가을날에」인 것으로 밝혀졌다.

北韓은 그동안 金日成이 「피바다」·「꽃파는 처녀」·「성황당」 등의 이른바 혁명가극 및 연극을 만든 것으로 선전해 왔으나 이처럼 詩를 창작했다고 소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詩는 金日成이 지난 79년 10월 15일 묘향산의 「국제친선전람관」에 올라 「깊은 감회」에 잠기어 지은 것으로 돼 있으나 창작 北韓에서도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10년이 지난 89년 1월 「조선문학」誌를 통해 발표하면서 부터였다.

「국제친선전람관」은 金日成이 해외로부터 받은 각종 선물을 전시키 위해 묘향산 어귀에 세운 北韓의 대표적 건축물이며 北韓주민들에게는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저명한 개별적 인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이 인류해방위업에 기여하신 불멸공로를 기리기 위해 보내온 축하의 꽃다발이 있는 곳』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詩에는 「국제친선전람관에 올라」라는 부제(副題)가 붙기도 했으며 아래의 주요 부분처럼 외형은 4·4調 및 7·5調의 운율을 가진 정형시 형태를 띠고 있다.

『료대위에 올라서니 천하절승 예로구나

묘향산 절경이야 태고부터 있는 것을

전람관 여기숫아 푸른추녀 나래퍼니

민족의 존엄 빛나 비로봉 더욱 높네

… (中 略) …

사대로 망국으로 수난도 많던 땅에

온 세계 친선사절 구름같이 찾아든다

5천년 력사국에 처음 꽃핀 이 자랑을

금수강산 더불어 후손만대 물려주리』

한편 北韓의 文學人들은 이 詩에 대해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고 평가하면서 전체 주민들에게 반드시 암송해야만하는 名作 「중요한 詩」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현 북한문단 최고의 평론가인 강능수는 이와 관련한 평론에서 『작품에 담겨진 깊은 사상성과 함께 최상의 높이에서 예술적 품위가 담보되어 있다』면서 이 詩를 『희세의 걸작이며 代를 두고 보존해야 할 국보이다』라고까지 극찬했다.

또 지난 8월 작가 황석영氏가 訪北했을때 안내를 맡았던 문예총 제1부위원장 최영화(시인)는 이 詩가 『호방한 시상, 심오한 철학적, 고도의 시적 함축과 일반화, 자연과 시대와 생활의 완전무결한 시적통일, 사상성과 예술성의 완벽한 결합, 약동하는 운률 등 극치에 이른 詩의 모든 본모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찬양한 뒤 이러한 詩를 받아보는 北韓의 시인들처럼 행북한 시인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평가는 金日成-金正日 이름으로 발표된 작품은 무조건 「불후의 고전적 명작」으로 규정하는 北韓 평론계의 구조적인 모순에도 기인 하지만 그보다는 金日成-金正日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분야의 「전지전능한 神」으로 묘사하



# 對南動向

---

- 「高麗聯邦制」 제의 10 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 개최
  - 「朝統平 國際連絡委」 呼訴文 발표
- 「제 2 차 고위급 회담」에 대한 편향적 보도 일관  
◀ 토막소식 ▶ 「망명객 마을」· 「기쁨組」



對南動向

「高麗聯邦制」제의10돌기념 평양시보고회개최

行事概要

- 日時 및 場所 : '90.10.8. 청년중앙회관
- 參 席 者 : 박성철 (부주석), 연형묵 (총리), 최태복 (당 비서), 이계백 (사민당위원장), 최문선 (평양 시 인민위원장) 등 당·정 고위간부 및 사회단체 일꾼

※ 박성철 부주석 보고 (중전에는 주로 「조평통」부위원장이 보고)

報道要旨

- 「高麗民主共和國 創立 方案」實現 再促求
  - “통일을 이룩하자면 정세가 어떻게 변하건 공존의 원칙에서 하나의 연방국가로 통일하는 길밖에 없음”
- 「3者 會談」必要性
  - “미군의 핵무기 철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불가침선언 등으로 북남 및 조·미간 관계를 새로운 기초위에서 발전시켜야 함”

- 各 分野別 對話 進行
  - “ 당국간 대화와 민간급 대화도 하고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분야별 대화도 진행해야 함 ”
- 「 南北政治協商會議 」 召集 主張
  - 「 고위급회담 」의 성과적 추진과 함께 통일대화의 가장 권위 있는 형식적인 정치협상회의 소집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
- 全民族的인 統一戰線 形成 強調
  - “ 범민족대회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며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함 ”

( 중방 '90.10.9 )

## 評 価

- 北韓은 「 高麗民主聯邦共和國 」 創立方案을提起( '80.10.10 )한 이래 年例的으로 紀念集會를 개최하고 同 方案의 정당성 · 합리성을 주장하는 한편, 우리측의 統一對話 立場 非難, 韓半島 緊張造成 責任 轉嫁를 위한 對南 誹謗宣傳의 주요 계기로 활용해 오고 있음.
- 金日成 報告大會의 特徵은
  - 박성철 副主席의 參加로 행사비중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 報告內容에서 從來 主張을 되풀이 하는 가운데 美-北韓間 關係를 “ 새로운 基礎위에서 發展 ” 시켜야 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 南北對話와 關聯하여 南北高位級會談의 成果의 推進과 함께 이른바 “ 가장 權威있는 形式 ”인 政治協商會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임.

- 이와같은 北韓의 태도로 보아 最近 韓半島 交叉承認 霧囿氣에 便乘, 보다 적극적인 對美 接觸 노력과 南北 當局間 대화 등을 전개하면서 「政治協商會議」, 「汎民族大會」 등 非政府 차원의 民間級 對話도 竝行 推進하는 「兩面戰略」을 驅使 할 것으로 보임.

## 「朝統平國際連絡委」呼訴文 발표

### 報道要旨

- 朝鮮의 統一과 平和를 위한 國際連絡委(略稱: 朝統平 國際連絡委)가 「高麗聯邦制」 支持月間에 즈음하여
- 10월 1일 파리에서 「世界各國 政府, 國會, 政黨, 社會團體 國際機構 및 非政府機構, 世界人民에게 보내는 呼訴文」 발표

### 호소문 요지

- 외부세력들의 「조선 분열의 영구화 책동」 전개 주장
- 한·미측에 남북대화 책임 전가
- 미군·핵무기 철수 및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요구
- UN의 「두 개 조선 조작」 반대 요구
-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위해 적극적인 연대성 운동 전개 호소

(중방 '90.10.13)

### 평가

- 北韓의 금번 呼訴文 발표는 最近 南北對話·交流 雰圍氣를 利

用, 「高麗聯邦制」의 정당성을 부각시켜 우리측의 「UN 單獨加入 努力」을 稀釋시키고, 「駐韓美軍 撤收」, 「팀스피리트 訓練 중지」 輿論의 국제적 확산을 통해 실질적인 南北關係 進展의 不振 책임을 轉嫁하기 위한 것임.

※ 同 團體는 해외의 最大 親北團體로서 지난 '89년 11월 「非常執行委 擴大會議」를 개최, 매년 10월을 「高麗聯邦制 支持月間」으로 설정한 바 있음.

## 「제2차고위급회담」에 대한 편향적 보도일관

제 2 차 南北고위급회담(10.16 ~ 19)이 폐막된 이후 북한은 최근 회담결과에 대한 對南책임전가 선전과 함께 北측 주장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선전공세를 적극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신문·방송들은 제 2 차고위급회담이 평양서 진행되는 동안 회담동향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 한국측 대표단일행에 대한 北韓주민들의 냉정한 환영분위기와는 달리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신문·방송들은 줄곧 北측 대표단동향 및 발언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편향적 보도태도를 보였고, 회담결과의 不振책임도 한국측에 전가했다.

제 2 차고위급회담기간중에 보여준 북한신문·방송들의 보도태도는 마치 이번 회담에서 北측 대표단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측은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까지 했다.

우선 북한신문·방송들은 회담 첫날인 10월 17일 오전 10시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막된 제 2 차南北고위급회담 첫날회의 소식을 보도 하면서 北측단장 延亨默은 「정무원」 총리라고 밝히면서 姜英勳 국무총리는 「수석대표」라고 호칭했다.

### ◆ 延총리 기초발언만 실황중계

北韓중앙방송과 平壤방송은 17일 첫날 회담소식을 실황중계하

면서 극히 편향적인 보도태도를 나타냈다. 즉 延亨默총리의 인사발언과 기초발언만을 모두 실황으로 중계한 반면 姜英勳총리의 인사발언과 기초연설은 실황중계는 물론 내용조차 밝히지 않은채 「南측 수석대표 인사발언이 있었다」 「南측대표단 수석대표 강영훈의 기본발언이 있었다」는 아나운스멘트를 짧게 처리한다.

이후 北韓방송들은 첫날 회의가 끝난 후 延亨默총리의 40 여분에 걸친 기초발언을 17일과 18일 반복해서 소개하는 반면 姜총리의 기초발언내용을 17일 하오에 10 여분 정도 간략히 소개하는데 그쳤다.

平壤방송들은 17일 하오 5시뉴스를 통해 첫날 회담이 끝난 후 가진 安炳洙 北측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한국측 대변인의 기자회견은 내용소개 없이 회견소식만 짚막하게 전했다.

북한 중앙방송은 平壤市黨責겸 인민위원장 崔文善이 한국측 대표단 일행을 위해 17일 저녁 옥류관에서 환영만찬을 베푸는 소식을 보도하면서 주로 平壤발전상을 자랑한 崔文善의 만찬인사를 상세히 소개한 반면 姜총리의 답사는 간략하게 소개했다. 이 방송은 또 崔文善이 이례적으로 姜英勳총리라고 호칭한 것과는 달리 「강영훈 수석대표를 비롯한 남측대표단 성원들과…」운운, 의도적으로 姜총리를 격하시키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제 2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이틀째 회담에서도 이렇다할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회담이 끝나게 되자 북한신문·방송들은 한결 같이 그 책임을 한국측에 전가하면서 北측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중앙방송은 18일 제 2차 南北고위급회담이 끝난 것과 관련, 南北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평화통일실현 기대가 어긋

난 것에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실망의 그늘을 안겨주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南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방송은 이어 한국측이 18일 비공개로 열린 고위급회담 2차회의에서 北韓측의 「불가침선언」 내용을 수용, 8개항으로 된 「화해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제목과 성격이 모호한 것을 새롭게 들고 나가 시간을 끌었다』, 『심히 불성실한 자세이고 대화를 통해 통일문제를 해결해 볼 것을 기대하는 겨레염원에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 ◆ 한국측 대화자세 시비

이 방송은 또 한국측이 첫날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 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17일 첫날 회의에서 한국측이 제시한 △ 통행·통신·통상 등 3通합의서 채택 △ 교류협력·협의회와 정치 및 군사협의회 등 설치운영 제안과 南北韓 상호 실체인정 주장에 대해서도 「구태의연한 분열주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두개조선 고착화를 노린 안」이라고 비난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19일 제2차고위급회담이 오는 12월 11일부터 서울에서 3차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 외에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측의 대화자세를 시비하는 論評을 게재했다.

이 신문은 韓國측이 北측이 제시한 南北불가침선언 채택에 호응하지 않고 8개항의 「화해·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제시한 것을 「분열상태를 영구히 고착시키자는 분열주의적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韓國측의 대화자세에도 언급, 「 회담장 밖에서는 화해 협력력이요 완화요 말했지만 회담장안에서는 우리를 적대시하며 싸움을 걸어왔다」면서 「 이것은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회담의 격에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회담전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중앙방송과 平壤방송은 18일 姜英勳국무총리가 金日成을 방문, 면담한 사실을 3시간만에 보도하면서 金日成이 南北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 것과 그의 발언내용만을 소상하게 보도하면서 姜총리가 金日成에게 전달한 盧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緘口하는 입장을 보였다.

#### ◆ 고위급회담 이후 편향성 高潮

북한신문·방송들의 편향적 보도태도는 제 2차 고위급회담이 끝난 직후 더욱 극심한 양상을 띠었다. 10월 19일 이후 연일 반복된 제 2차 고위급회담과 관련한 주요 논조로는 「 결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10.19 노동신문 논평), 「 불가침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입장의 표시」(10.20 노동신문 논설), 「 불신을 해소하자면 그 근원부터 없애야 한다」(10.22 노동신문 논평)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노동신문의 논설·논평요지는 통일문제해결에서 가장 주된 장애요인과 불신의 근원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韓國측이 불가침선언채택에 호응하지 않은 것은 「 분열의 고정화를 노린 것」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특히 「 결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題下의 10월

19일자 논평은 이번 제 2차 고위급회담에서 한국측이 「실체인정이요 하는 분열고착론을 들고 나오면서 유엔대책문제와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문제, 방북인사 석방문제 등 긴급한 문제토의를 외면한 것 등은 다 분열주의적인 입장으로 부터 출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북한신문의 論調행간에는 기본적으로 북측이 「통일지향적 입장」인데 반해 한국측이 「분열주의적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회담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인식을 대내외적으로 선전코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 주고 있었다.

북한측의 그같은 편향적인 보도태도는 제 2차 고위급회담에 대한 中·蘇의 시각과도 대조적인 차이를 보여준 것이었다.

#### ◆ 객관적인 中·蘇보도

中國관영 北京방송은 10월 21일 제 2차 南北고위급회담 성과에 언급, 한국측의 「화해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이나 北韓측의 「불가침 선언」 등에서 쌍방은 「공동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실위주의 객관적 시각으로 논평했다.

이 방송은 韓國측이 北韓측의 「불가침선언」에 대해 「건설적으로 칭찬하고 높이 평가,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고 회담진행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고 오는 12월 11일~14일까지 서울서 열릴 제 3차고위급회담에서 「쌍방의 제안과 관련된 최종 합의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蘇聯관영 모스크바방송은 제 2차 고위급회담의 전개과정을 시종 상세히 보도하는 가운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모스크바방송은 10월 19일 제 2차 고위급회담의 결과에 언급, 이번 회담이 구체적인 합의문 없이 끝났으나 △ 韓國측이 北韓이 내놓은 「불가침선언」 초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 △ 北韓의 「불가침선언」 초안에 한국측에 반대해온 駐韓美軍철수 조항이 없었다는 점 △ 金日成이 南北정상회담에 동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앞으로의 회담전망은 「공통점을 찾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긍정적인 기대와 전망을 표시했다.

中·蘇의 이같은 보도내용에 비추어 보면 北韓의 보도태도는 매우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말해 북한선전기관들의 보도내용들은 北측대표단이 회담과정에서 보여준 비타협적인 태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서 진정 대화와 교류, 나아가 통일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씻어 주지 못하고 있다.

북한측의 부정적이고 비타협적인 태도는 제 2차 고위급회담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 ◆ 對南革命구도 不變 시사

첫째는 한반도에 「두개의 韓國」 실체의 인정을 거부하고 나왔는데 이는 北韓의 對南혁명전략구도가 여전히 不變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北韓이 이를 은폐한 채 겉으로는 정치·군사적 대결의 완화와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른 양면성을 노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北韓의 긴장완화방안은 「통일지향적」인 반면 한국측의

교류·협력방안은 「분열지향적」인 것으로 주장했다.

이른바 불가침선언채택을 통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통일을 앞당기는 최선의 방안이고 반면에 이산가족의 고향방문과 각 분야에 걸친 교류협력을 통한 우선회구축을 하자는 韓國측안은 분열을 촉진하고 「두개 조선」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매도하는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이와함께 북한이 訪北인사의 석방·팀스피리트훈련중지 및 유엔 단독가입반대 등을 재삼 들고 나온 것 등은 기실 내정간섭적 태도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회담내용의 본질적인 토의보다는 회담외적인 정치선전적 효과를 겨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은 제2차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한국측 제의내용 및 발언 내용들은 묵살한 채 北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함으로써 北韓주민들에게 회담내용을 왜곡 전달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면한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에 따른 체제위기의식을 최소화시키는데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표출시켜 주었다고 보겠다.

(내외통신 715 호 '90.10.26.)

● 토막소식 ●

「망명객 마을」, 「기쁨組」

「망명객 마을」은 平壤市 철봉리 구역에 있는 외국인 테러범 수용소를 말한다.

이곳에는 약 20여명의 외국인 테러범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 테러범들은 北韓의 黨국제부나 인민무력부에서 받은 정착금과 각종 수당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 테러범들을 출신국가 및 지역별로 보면 과반수를 東南亞 및 日本人이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아랍, 아프리카, 東歐, 南美人 순이다.

이들은 평양시내에서는 대체로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으나 갈곳이 없기 때문에 平壤시내에 돌아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수용소에서 소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北韓은 대부분 이들을 첩보나 정보수집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국제적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지역 출신의 테러범을 단기 공작교육을 시킨 후 대상 국가에 침투시켜 필요한 정보를 입수토록 하고 있다.

특히 대상국가에 한국의 대사관 등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에서의 한국 요원들의 활동상을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이 테러범들에 대한 교육은 인민무력부 정찰국에서, 그리고 공작에 필요한 정보등은 黨국제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對外動向

---

- 北韓 - 日本間 關係 改善
  - 北韓 - 蘇聯間 「언론공방전」 심화
- ◀토막소식▶ 압록강 다리를 「朝·中 親善의다리」로 改名



## 北韓 — 日本間 關係 개선

### 1. 分析 範圍 및 目的

- 最近 日本 政黨 代表團의 訪北 ('90.9.24-9.28)을 계기로 北韓과 日本은 쌍방간 早期 修交 推進은 물론,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손해배상, 정치·경제·문화분야에서의 交流 增進을 推進하기로 합의하였음.
- ※ 北韓 勞動黨—日本 政黨 (自民黨·社會黨) 代表 訪北團은 5 日間の 會談을 마치고 8 個項의 공동선언문 발표 ('90.9.28)
- 同 合意內容이 실현되는 경우, 北韓은 過重한 外債와 資本不足, 技術 落後 등으로 인한 經濟的 沈滯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됨은 물론, 向後 南北韓間的 經濟交流·協力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다음 내용은 지금까지의 北韓—日本간 經濟交流 실태를 考察하고 쌍방간의 關係改善에 따른 經濟·技術協力發展 전망, 그리고 그것이 北韓經濟 內部 및 南北韓 經濟交流·協力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對北 經濟政策 樹立에 參考하고자 함.

## 2. 北韓의 對日 經濟交流 實態

### 가. 對日 交易關係

- 北韓은 日本이 1955.11 월 『對北 人的·物的交流 禁止의 原則』을 發表함에 따라, 香港, 中國의 大連 등을 經유하는 間接貿易方式으로 對日 交易을 推進하였음.
  - 그러나 '56. 3월에 日本에서 『日一朝 貿易會』 結成, '61. 4월 日本 政府의 『對北 直接貿易 許容』, '63.10월 對北 『強制바터地域 撤廢措置』 등으로 쌍방간 交易은 急伸張하였으며, '72. 1월 『日一朝 貿易促進合意書』 締結로 北韓의 對日 交易은 새로운 轉機를 맞았음.
  - 그결과 北韓의 對日 交易額은 70年代 後半에 이르러 北韓 交易總額의 15% 수준까지 차지하였으나 80年代 後半에 들어서는 다소 감소, 交易總額의 10% 수준을 維持하고 있음.
  - '89년도 北韓의 對日 交易關係를 보면, 交易總額은 4.84 億 弗(輸出: 2.68 億 弗, 輸入: 2.16 億 弗)로서 北韓 交易總額의 10.1%(輸出: 13.7%, 輸入: 7.6%), 對西方 先進國 交易總額의 65.1%(輸出: 83.0%, 輸入: 51.4%)를 차지하고 있음.
- ※ 北韓의 主宗 수출상품은 광산물, 농수산물, 철강제품 등 1차산품이며, 主要 輸入商品은 機械類, 電氣器機, 輸送器機, 化學製品 등 2次產品임.

## 나. 對日 債務關係

- 北韓의 對日 債務問題는, 1972년부터 日本에서 多量의 플랜트를 延拂條件으로 導入했으나 北韓의 輸出 主宗品目인 광물자원의 국제가격 폭락으로 外貨事情이 악화되어 1975년부터 同 플랜트 代金の 支拂 不能事態가 발생 함으로써 비 롯되었음.
- 北韓과 日本은 '76년 이후 元金 償還時期 延期, 分割 償還 推進, 支給 利率 調整 등에 관하여 수차례 합의 하였으나, 北韓의 상환능력 력부족으로 이행되지 못하였으며, '89年 末 現在 元利金 包含 약 600億엔(5億弗)의 對日債務가 남아있음.

※ 『日本 貿易振興會』發行, 『北朝鮮의 經濟와 貿易展望』  
(1989. 8), p.75

## 다. 合營·合作 實績

- 北韓이 '84. 9월 合營法 제정이후 '90. 9월말 현재까지 北韓에 誘致되었거나 설립 합의에 이른 합영기업은 총 130여 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 중 100여건(총 件數의 77%)이 日本 朝總聯系企業 또는 商工人과 이루어진 것으로서 契約締結 또는 設立 完了된 70여개 합영기업의 對北韓 投資額('86-'89)은 약 113億엔(9千萬弗) 정도임.

(『朝鮮問題研究所』發行, 『朝鮮資料』, 1990. 5月號)

## 라. 漁業分野 協力關係

- 北韓-日本間의 漁業 協力關係는, 北韓이 1977년 『200해리 經濟水域』 및 『50해리 軍事境界水域』을 선포함에 따라, 같은 해 日本의 『日-朝 漁業協議會』와 北韓의 『東海水產協同組合聯盟』間에 『漁業暫定合意書』가 締結됨으로써 민간차원으로 시작되었음.
  - 그후 同 暫定合意書를 5次('78.6-'89.12)에 걸쳐 延長 施行하여 오고 있는 바, 현재 유효한 합의서에는 日本 漁船의 北韓 水域內 操業漁船 數 및 어획량, 入漁料 징수문제, 北韓 산 명태의 對日本 판매조건, 수자원 보호 및 어업기술 교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 금년 5.19일에는 日本의 大型漁船(12척)들이 北韓 선적으로 위장한 채 蘇聯管轄 감차카반도 부근 公海上에서 연어와 송어를 不法으로 잡아오다 蘇聯 當局에 의거 拿捕되어 蘇·北韓·日本間에 외교문제로 飛火된 바 있음.

### 3. 北韓 經濟 및 南北韓 經濟交流에 미칠 影響 分析

#### 가. 『共同宣言』上的 經濟協力 關聯內容

- 3黨(北:勞動黨, 日:自民黨, 社會黨)은 과거 日本이 北韓에 끼친 불행과 재난, 戰後 45年間 北韓에 끼친 손실에 대해 충분히 보상해야 할 것을 인정
- 3黨은 北-日間에 존재하고 있는 비정상적 상태를 해소하고 가능한 한 빠른 時期에 國交關係 樹立 필요성 인정
- 3黨은 兩國 關係개선을 위해 政治·經濟·文化 등 各 分野에서 交流를 발전시키며, 우선 通信衛星 利用과 兩國間의 直航路 開設 필요성 인정

#### 나. 賠償額 및 經濟協力資金의 規模와 提供時期

- 아직까지 쌍방에서 公式的 言及은 없었으나, 『補償額』과 經濟資金을 포함하여 北韓은 50億달러 水準, 日本은 5億달러 水準을 각각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言論은 보도하고 있음. (중앙일보 '90.10.8日字)
  - 實際 提供 金額은 協商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나, 言論報道가 사실이라면 쌍방간 考慮 金額의 격차가 너무 클 뿐 아니라, 既存 負債와의 相計問題, 『戰後 45年 報償』문제 등으로 協商過程에서 상당한 陣痛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1965年 韓日協定 당시 日本은 우리나라에 5億弗(無償 3

億弗, 有償: 2 億弗)을 對日 請求權 資金 名目으로 제공하였 으며, 80 年代 中盤( 5 共和國 時期) 經濟協力資金으로 40 億弗의 借款을 제공한 바 있음.

- 한편, 賠償 및 經協資金 提供時期는
  - 北韓 發表 共同宣言文에 의하면 『國交關係를 樹立하게 되는 것과 關聯하여 報償』( 中방 '90.9.28 )한다고 표현 하여, 명확한 『報償』時期가 명시되지 아니하였는데 반 하여
  - 日本語로 發表된 共同宣言文에는 『國交關係를 樹立하는 것과 同時에 報償』( 每日新聞, '90.9.29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한글 宣言文과 日本語 宣言文間에 表現上 差異가 있음.

#### 다. 北韓 經濟에 미칠 影響 分析

- 外債 償還 및 經濟建設資金 確保
  - 日本이 제공하는 『補償額』 및 經協資金은 北韓의 外債( '89 末 現在 68 億弗) 償還에 必要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外貨不足으로 輸入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원료, 기계, 설비 등의 供給增大로 경제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日本 企業의 對北韓 投資 促進
  - 지금까지 日本의 對北韓 投資는 朝總聯을 中心으로 輕工業, 서비스업分野에서 小規模的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國交가 樹立되는 경우, 日本 企業의 投資 進出이 促進될 것

으로 보임.

※ 그러나 北韓 內部的 投資與件(各種 制度, 勞動生產性 등)이 劃期的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國交 樹立으로 인한 급격한 投資 增大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國際 通信網의 發展 및 觀光客 誘致에 寄與

— 『通信衛星 이용과 直航路 開設』 合意(共同宣言 ③項)가 실현되는 경우 北韓의 脆弱部門中의 하나인 國際 通信能力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西方世界와의 最初 直航路 開設로 日本을 포함한 西方世界 觀光客 誘致 에도 寄與할 것으로 판단됨.

● 其他 經濟·科學分野 交流 增大

— 北-日 修交와 北韓의 對蘇·東歐 交易 및 협력관계 條件 惡化의 反射의 영향으로 北-日間 經濟·科學分野 교류는 多方面에서 늘어날 것으로 展望됨.

※ 그러나 지금까지의 北-日間 交易이 더이상 확대되지 못한 것은 未修交에 따른 제도적 障礙에서 기인하였다고 보다는 北韓의 外貨 및 輸出商品 부족이 더 큰 요인이었음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큰 幅의 增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다만, 漁業分野에서는 『후지산號』 船員 釋放, 國交 正常化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금까지의 民間차원에서 暫定 漁業 協定形式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政府間 公式協定으로의 발전이 예상되는 바, 특히 이 分野에서의 협조가 크게 增大될 것으로 판단됨.

## 라. 南北韓 經濟協力에 미칠 影響 分析

- 단기적으로 볼 때, 北-日間 國交 正常化는 北韓이 當面하고 있는 經濟的 危機 解消에 돌파구를 제공함으로써, 南北韓 經濟交流 또는 北韓의 經濟改革·開放 推進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北韓 經濟의 最大 懸案課題인 『外債 償還과 資本不足 解消』에 결정적으로 寄與함으로써, 南北韓 經濟交流 早期 實現 또는 北韓의 經濟改革·開放 推進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더우기 北韓-日本間의 經濟協力 對象으로 豫想되는 분야도 우리의 對北韓 經濟交流 관심내용과 競合(例: 地下資源 開發, 遠洋漁業 協調, 觀光開發 등)되는 것들이므로 北韓의 對南 經濟協力 필요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 볼 때는 日本이 北韓의 經濟建設 費用 일부를 負擔하며, 經濟交流·協力 과정에서 西歐 思潮의 流入 또는 北韓의 경제관리 체질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市場經濟 體制로의 改革·開放을 促進하고 窮極의으로 우리의 統一費用 負擔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됨.

### 4. 綜合評價

- 北韓이 日本과의 國交 樹立을 서두르는 것은 최근의 外交的 孤立을 脫皮하려는 意圖와 함께, 蘇·東歐와의 경제협력관계 惡化에 따른 對外經濟協力 공백상태를 보충하고 침체된 國

內經濟를 회복시키려는 경제적 목적이 더 크다고 할 것임.

- 『共同宣言』에서의 合意 內容이 실현되는 경우, 北韓은 外貨, 國際通信, 관광, 어업 등 분야에서 可視的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北韓의 對南 經濟交流·協力 필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는 南北韓間의 關係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됨.
- 그러나 北-日 修交는 우리 政府의 外交政策과 相馳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政治·外交上 또는 長期的인 觀點에서 본 南北 經濟協力關係上 肯定的인 효과도 기대됨.
- 따라서 우리 政府는 日本의 對北 提供 賠償金 및 經濟協力資金이 南北韓間 經濟交流 推進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北韓 經濟의 改革·開放 및 北韓 住民의 생활향상에 寄與하고 軍事力 增強에 사용될 수 없도록 對日外交努力을 傾注해야 할 것임.

## 北韓—蘇聯間「인론공방전」심화

지난 9월 30일 역사적인 韓·蘇수교를 계기로 북한과 소련의 언론들이 가히 「인론공방전」이라고 할 만큼 강도높은 비난공세를 전개하고 있어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과 소련언론들의 이러한 공방전은 쌍방관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최근 북한—소련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韓·蘇수교 5일째가 되는 지난 10월 5일 당기관지 노동신문에 「달리로 팔고사는 외교관계」題下의 논평원 글을 통해 韓·蘇간의 역사적인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이를 배신이란 말 이외에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한 분노를 표시하면서 소련을 격렬히 비난했다. 특히 북한은 이 신문에서 소련을 『세계대전 후 미국과 함께 조선을 38선으로 분열시킨 책임이 있는 나라이며 동시에 조선을 맨처음 유일한 합법 국가로 인정 한 나라』로 지칭함으로써 그동안 소련을 「해방의 은인」으로 찬사해 왔던 것과는 달리 「분열의 책임자」로 비난하는 극도로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 ◆ 北韓, 소련을 한반도 분열의 책임자로 비난

이어 이 신문은 소련의 對韓수교 조치에 대해 『조선에 두개의

조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조선의 통일에 역행하는 분열주의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 韓·蘇수교가 對內的측면에서 이른바 「하나의 조선」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反통일적 조치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美·蘇및 한국과의 3각결탁관계의 형성을 통해 『결과적으로 조선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며 소위 개방으로 유도하여 사회주의제도를 뒤집어 엎으려는 미국의 기본전략에 공연히 가담하는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정책마저도 제국주의의 「反사회주의적 책동」의 일환으로 비난했다.

韓·蘇수교와 관련한 북한언론의 이같은 공세에 직면해 소련언론들 또한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소련관영 모스크바방송은 노동신문의 비난논평이 나온 당일인 5일 반박논평을 통해 『한반도에 2개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한국과 수교한 소련을 비난하면서도 한국의 近隣인 日本에 관계개선의 추파를 던지는 북한의 양면성을 꼬집는 등으로 韓·蘇수교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소련 관영 타스통신의 논평원 겐나지 페트로브도 노동신문의 비난논평에 대해 『노동신문의 논평원은 지구촌의 방방곡곡에서 두 강대국들이 대결하고 있던 그 시기를 그리워하는 듯한 인상을 풍겨주고 있다』고 언급, 냉전구조의 종식을 위한 세계사적 조류에 반하는 북한의 태도를 꼬집으면서 북한이 소련에 있어서 특별한 국가가 아니라 단지 수많은 수교국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소련언론들은 북한언론의 비난논평에 대한 이와같은 반박논평과 별도로 북한사회의 비민주성은 물론 심지어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등의 매우 미묘한 문제까지도 서슴없이 제기했다. 9일 모스크바방송에 따르면 소련의 유력 정치주간지 「노보에 브레미아」(뉴 타임즈)는 韓·蘇수교와 관련된 한 기사에서 『두 조선 발생은 두 독일국가 발생과 똑같은 원인을 갖고 있다』고 지적, 북한이 「金日成에 의해 수립된 정권」이 아니라 戰後 東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탈린이 세운 사회주의국가」라고 주장함으로써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했다.

#### ◆ 蘇誌, 북한정권의 정통성 「부인」

이어 「노보에 브레미아」紙는 金日成의 장기간의 독재정치와 金日成-金正日父子세습체제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최근 북한이 對日수교 노력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기 후계자에게 공고한 자리를 넘겨주려는 소망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韓·蘇수교에 주는 대답으로 외교적 차원에서 새 보조를 취하도록 하는 것 같다』고 평가함으로써 북한의 對日접근 의도가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계산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소련의 유력 잡지 「에코 플라네뜨이」(혹성의 메아리)는 최근號에서 「낙원에서의 2주일」題下의 平壤기행 기사를 통해 平壤을 넓은 도로와 훌륭한 건물들로 잘 청돈되어 있으나 군인들이 많이 눈에 띄고 상점도 상품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분배소」나 다름없을 뿐 아니라 주민들은 각 역마다에서 철저하게 신분증과 여행허가증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행증 없이 여행할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등으로 북한사회의 비민주

성과 폐쇄성을 통렬하게 비판한 것으로 10월 2일 모스크바방송이 보도했다.

소련과 북한언론들의 이와같은 공방전은 소련의 對韓접근이 가속화되었던 지난 연초부터 표면화되어 왔다. 북한은 지난해말 東歐에서 「민주화」 도미노현상에 의해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사회주의 고수를 천명하며 소련의 對韓접근을 강도높게 비난하기 시작했으며, 소련은 북한에 대한 개혁압력을 가중시키기 위해 북한체제의 아킬레스腱이라고 할만큼 중요한, 그러나 그동안 무시돼 왔던 문제들, 예컨대 金日成이 소련군대위 출신이었다든가 6.25가 북한의 南侵에 의한 것이었다는 등 역사적 사실들을 잇달아 폭로함으로써 북한을 곤혹스럽게 했다. 더욱이 지난 6월 初 盧泰愚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소련의 고르바초프대통령을 전격적으로 만나 韓·蘇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북한은 소련을 더이상 「혈맹」으로 간주하지 않으려는 극단적인 對蘇태도를 보여왔다.

그러한 북한의 태도는 지난 9월 初 平壤을 방문한 세바르드나제 外相에 대한 냉대와 함께 9월 19일 정무원기관지 민주조선을 통해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고 金永南-세바르드나제간의 회담(9.2) 결과로서 북한이 소련에 전달한 비망록을 공개하며 소련을 맹렬히 비난한 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세바르드나제는 訪北기간중 金日成과의 면담도 못하는 등 이례적으로 냉대를 받았으며, 金永南도 세바르드나제와의 회담에서 소련이 한국과 수교하면 북한-소련간 동맹조약에 의해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아온 무기를 『자책적으로 마련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 소련으로부터의 무기수입 중단을 경고하는 등 강압적인 자세

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소련언론간의 이와같은 공방전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쌍방관계는 매우 냉각된 상태에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일 당창건 45주와 12일 對蘇수교 42주에 즈음한 동향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북한은 당창건 45주 행사에 소련인사를 초청하지 않았으며 소련 역시 축전조차도 보내지 않았었다. 그리고 對蘇수교 42주와 관련해서도 북한과 소련은 공히 연례적으로 개최해오던 기념행사를 하지 않거나 혹은 그 비중을 격하시켰을 뿐 아니라 기념논조도 일체 게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과 소련언론은 自國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당분간 공명전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외통신 714호 '90.10.19.)

● 토막소식 ●

압록강 다리를 『朝·中 親善의 다리』로改名

- 北韓은 中國軍의 6.25 參戰 40周年에 즈음하여 압록강 現地에서 조세웅(平安北道 黨 責任秘書), 이군(中國 요녕성 人民代表大會 副委員長) 등이 참석한 가운데 『朝·中 親善다리』命名式이 개최되었다고 보도
- 조세웅은 『命名辭』에서 쌍방간의 『歷史와 傳統을 지닌 뿌리 깊은 親善』을 변함없이 繼承·發展시킬 것을 力說하였음. (중방. '90.10.23)

# 共産圏 및 周邊動向

- 蘇聯의 市場經濟 추진동향
- 再編되는 國際秩序와 韓半島



## 蘇聯의 市場經濟 추진동향

### 1. 概況

- 고르바초프大統領은 蘇聯社會가 안고 있는 政治·經濟 등 諸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집권 이래 5年여동안 一聯의 改革·開放政策을 驅使하고 있음.
- 특히 蘇聯의 장기적 經濟 沈滯狀을 挽回하기 위한 方案의 一環으로 資本主義的 市場經濟方式을 부분적으로 導入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 가운데 聯邦最高會議는 4段階 經濟改革案을 決議('90. 9.24) 하였고,
- 이어 同會議에서 고르바초프大統領이 제시한 市場經濟 移行計劃案이 승인(10.19)됨에 따라 蘇聯은 巴야흐로 本格的인 市場經濟體制로의 歷史的 새로운 길에 접어들고 있음.

### 2. 市場經濟計劃案의 內容

- 금번 最高會議를 통과한 市場經濟計劃案은 그동안 그 移行速度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保守·改革派間의 의견을 折衷한 것으로서 크게 4段階로 구성되어 있음.

— 第1段階는 通貨吸收을 위해 金利를 引上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 재정적자 削減, 화폐발행 억제
  - 預金金利引上에 의한 국민예금보호
  - 所有의 非國有化와 私有化
  - 에너지·鑛物資源 등 國家價格의 단계적인상
  - 第2段階는 1/3 商品에 대한 국가통제를 유지하면서
    - 緊縮財政과 엄격한 金利政策의 緩和
    - 散賣價格의 변동에 맞춘 임금의 물가연동방식 도입
    - 중소기업의 民營化 圖謀
    - 商品의 자유판매 실시
  - 第3段階는 生産과 投資를 증대시키기 위한 誘因策으로서
    - 消費物資와 생산수단의 市場安定化
    - 주택시장의 創設 및 給與體系의 改革
    - 가격의 一層 自由化 圖謀
  - 第4段階는 실질적인 私有化體系의 實施를 위해
    - 經濟와 財政安定性 확립 및 消費市場의 개선
    - 市場競爭의 활성화
    - 輕-食品工業, 농업서비스 부문활동 촉진
    - 루블貨의 국내에서의 交換性 賦與 등 실질적인 市場의 自動調節機能을 完了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또한 금번 改革案은 지난 9月 最高會議에 上程되었던 잠정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써, 來年末까지 市場經濟導入을 完了하자는 급진파 샤탈린의 『500日案』과 점진적 改革方式을 채택하자는 리슈코프 總理案을 折衷한 것이라는데서 특성을 찾아 볼 수 있음.
- ※ 샤탈린 案은 蘇聯經濟의 沈滯가 社會主義 經濟構造 自體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단기내 구조적 개혁을 단행, 一舉에 시장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 500日내 國營企業의 70%를 株式會社 형태로 民營化
- 主要 생필품을 제외한 가격자유화의 전면실시를 주장함.

※ 리슈코프案은 현 蘇聯의 經濟構造와 實態를 감안하여 인플레이션, 실업사태 등의 혼란을 방지하면서 政府統制 아래 段階的으로 市場經濟 方式을 導入하자는 것으로써

- '90~'95年間 段階的인 조정을 통해 市場經濟로의 移行 基盤을 구축하면서
- '95年 以後 본격적으로 이를 推進하자는 穩健改革案임.

- 이러한 段階的 發展過程을 豫見하고 있는 今番의 市場經濟 改革案은 蘇聯 歷史上 前無後無한 획기적인 것이기는 하나 蘇聯의 既存經濟體制 基盤을 그대로 둔채 市場經濟方式을 導入, 「舊體制 維持」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옐친 러시아共和國 最高會議議長 등 急進派의 反對意見에 直面하고 있기 때문에 그 前途는 樂觀할 수만은 없음.
- 특히 私有化의 概念이나 主體, 土地의 소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고, 私企業의 규모나 經濟活動에 소극적 立場堅持, 經濟力 貧困, 市場經濟로의 전환을 위한 하부구조의 脆弱 등 諸般問題點 때문에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보임.

### 3. 評 價

- 금번 蘇聯最高會議의 市場經濟 移行計劃案은 불세비키 革命이래 70여년간 持續해 오던 中央統制計劃方式에서 탈피, 資本主

義的 市場經濟로의 과감한 전환을 意味하는 蘇聯歷史上 처음으로 이루어진 획기적인 것이기는 하나,

- 市場經濟로의 전환을 위한 基本土臺의 未備와 그 移行速度, 범위에서 急進·保守派간의 의견대립, 蘇聯指導部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의 段階的 실시에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의 本格的 實施와 政策에는 보다 많은 時日이 所要될 것으로 보임.
- 특히 同計劃案의 실시를 놓고 엘친의 位相이 段階的으로 提高되어 고르바초프大統領과의 경쟁관계가 노골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蘇聯政局의 梗塞可能性과 社會混亂의 加증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번 計劃案이 고르바초프大統領의 提議대로 실현될 경우, 失業의 增加나 인플레이 등 山積한 경제문제와 복합적으로 連繫되면서 中央·地方政府間的 權力再編 등 政治的인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再編되는國際秩序와韓半島

다음 내용은 中央日報社가 創刊 25週年 紀念事業으로 主催한 世界 著名言論人 討論會 - 「再編되는 國際秩序와 韓半島」 - (9. 11. 프레스센터)에서 發表된 論文을 要約·整理한 것임.

### 1. 國際秩序 改編展望

Andre Fontaine (佛 Le Monde 紙 社長)

- 이 세미나가 不過 1年前에 개최되었더라면, 누구도 감히
  - ① 東歐에 대한 蘇聯支配의 終熄과 東西共存時代의 開幕
  - ② 獨逸 分斷의 終熄과 유럽질서의 再編
  - ③ 蘇聯에서의 共產黨 權力獨占 廢棄 등을 云謂할 수 없었을것임.
- 위와 같은 변화는 극히 최근에 일어나기 시작하여 지금도 進行되고 있으며, 현재의 國際情勢의 變化를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음.
  - ① 蘇聯은 經濟的 危機때문에 이미 超強大國의 역할을 遂行할 수 없음.
  - ② 美國의 國家安全保障의 礎石인 對蘇聯 軍事的·理念的 封鎖戰略은 무의미하게 되었음.
  - ③ 蘇聯의 威脅이 사라진 반면에, 韓國人口의 折半에 지나지 않지만 강력한 軍隊와 石油資源을 가진 이라크의 威脅이 새로이 나타나고 있음.

- ④ 지구상에서 人間以下の 環境에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
- ⑤ 쿠웨이트事態에서 보듯이 지구상에는 戰爭과 테러리즘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음.
- ⑥ 人口增加, AIDS 및 公害가 人類의 最大公敵임.
- 이러한 世界情勢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21世紀를 지탱해 나갈 새로운 國際秩序가 구축되지 않아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世界는 새로운 國際秩序의 再編과 平和定着 方案을 摸索해야 할 것임.
  - 즉, 新秩序 없이는 世界가 維持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蘇聯의 態度變化, 東·西共存의 可能性등으로 인해 새로운 世界秩序의 구축이 결코 幻想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구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이제 많은 나라들은 ① 低發展 ② 文盲 ③ 饑餓 ④ 腐敗 ⑤ 人口爆發 ⑥ 公害 등 많은 公敵에 대처하여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등 국제적인 근본원칙에 합의해 나가야 함.
- 이같은 國際情勢의 進展이 示唆하듯이 정확한 時期는 예측할 수 없으나 韓國이 獨逸의 先例를 따를 것이 분명하며, 모든 상황이 그런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음.
  - ① 韓·蘇間에 있어서 諸關係의 正常化 움직임.
  - ② 韓·中間 경제협력의 進展
  - ③ 北韓의 經濟的 失敗와 이에 따른 體制 存續에 대한 懷疑
- 결국 韓國과 獨逸間의 여러가지 差異點, 예컨대 蘇聯이 東獨에 가했던 것과 같은 改革·開放壓力, 中·蘇에 대한 北韓의 依存

度 등을 감안할 때 中·蘇의 北韓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나 결국 北韓도 東獨처럼 변화를 수용하게 될 것임을 韓國側이 고려해야 할 것임.

## 2. 韓國과 2000年

Harrison Salisbury (美 NYT 前副主筆)

- 蘇聯帝國의 해체와 東歐圈의 變革에 의해 냉전구조가 瓦解됨에 따라 새로운 民族主義 思潮와 기술집약산업(하이테크)이 미래를 주도할 것이며, 특히 環太平洋地域은 새로운 繁榮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임.
- '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北京訪問을 계기로 30年 가까운 中·蘇對立이 解消된데 이어, 내년 4월 고르바초프의 日本訪問을 통해서 日·蘇 領土紛爭이 해결된다면, 아시아에 남아 있는 舊時代의 宿題는 韓半島 統一뿐이라 하겠음.
- 世界情勢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環太平洋地域에는 日本과 더불어 아시아의 『작은 龍』 5國이 密集해 있는데, 그중 韓國은 西歐·美·日과의 생산성 경쟁, 기술집약적 산업에의 投資, 빠른 경제성장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蘇聯이 시베리아지역 개발을 위해 韓國과의 관계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듯이 中國도 韓國과의 관계를 維持하는 쪽이 北韓과의 관계를 維持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결국 中·蘇는 北韓의 論理에 反對되는 『두개의 韓國』 政策을 추구해 나가고 있음.
- 이제 北韓은 中·蘇로부터 從來와 같은 원조·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로부터 韓國과의 관계개선과 사회를 개방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음.

- 金日成 死後 北韓自體도 변하지 않을 수 없고 北韓에 대한 韓國의 영향력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統一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하겠음.
- 統一韓國은 飛躍的인 산업기술의 발전을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터인데, 社會主義 교육을 받은 北韓住民의 낮은 技術과 임금수준을 韓國水準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신중한 計劃이 必要하며, 東·西獨의 경험이 좋은 先例가 될 것임.
- 韓國이 장차 中·蘇와의 실질적인 關係가 擴大되고 완전히 統一된다면, 韓半島에 대한 美國과 蘇聯의 政治·軍事的利害는 자연히 감소될 것임.
- 결국 21세기에는 環太平洋 沿岸地域이 世界史의 主要 舞臺가 될 것이며, 統一된 韓國은 그 主役國家 중의 하나가 되어 이웃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도 增大할 것임.

### 3. 冷戰의 終熄

Peter Jenkins (英 Independence 紙 副主筆)

- 지난해 일어난 東歐變革은 冷戰構造下에서 東·西 관계를 구분해왔던 데탕트, 收斂理論 등 여러가지 言語와 理念을 無力化시켰으며, 이제 누구도 共產主義가 완전히 崩壞되거나 蘇聯帝國이 일거에 무너지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음.
- 불과 금년 1월경까지만 해도 대처 英國首相조차 獨逸이 統一

되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豫測하였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獨逸統合의 속도가 너무 빨라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가늠하기 어렵게 되었음.

- 베를린障壁 開放을 계기로 冷戰體制가 終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다, 우리 자신들조차 여전히 共產主義時代의 종료, 거대한 蘇聯의 衛星帝國의 瓦解에 이어, 이제는 蘇聯帝國 자체가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지난해 中東부유럽에서 일어난 連鎖革命은 民衆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變化要求가 작용했지만, 역시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의 페레스토이카 政策이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사실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共產政權이 無血革命에 의해 무너진데 이어, 武力鎮壓을 提議한 호네커 東獨書記長의 요청을 고르바초프가 거절함에 따라 東獨의 변화와 獨逸統一이 가능해 지게된 것임.
- 1988년 12월 고르바초프가 유엔 중연설을 통해 東歐駐屯 蘇聯軍의 철수를 주장했을때, 이미 蘇聯의 軍事戰略은 『攻撃』에서 『防禦』概念으로 전환되었으며, 東歐圈의 變革에 따른 바르샤바 條約構造의 崩壞로 인해 蘇聯의 유럽에 대한 地政學的 重要性이 顯著히 감소되었다고 하겠음.
- 이제 더이상 蘇聯은 西歐에 대한 寄襲攻撃이나 레닌式의 膨脹 政策을 추구하려 들지 않으며, 이러한 對外政策의 基本원칙을 全世界에 걸쳐 적용해 나가고 있는데, 中國에 대한 珍寶島 移讓, 日本과의 北方領土 協商用意 등이 이를 뒷받침함.
- 이러한 冷戰終熄은 汎世界的인 潮流라는 점에서 볼때, 韓半島

에서의 緊張緩和도 기대할 수 있으나, 北韓이 外部 言論媒體로부터 北韓住民을 철저히 遮斷시키고 있기 때문에 北韓의 變化可能性은 예측할 수 없음.

- 東獨의 변화에 있어서 蘇聯의 역할이 중대한 계기가 되었으나 역시 가장 중요한 變數는 東獨인들의 民主的 政治, 旅行의 自由 擴大, 西獨과 같은 經濟的 豊饒 憧憬 등이 重要 要因이었다는 점에서 北韓社會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4. 토크빌時代의 終末

Theo Sommer (西獨 Die Zeit紙 主筆)

- 지난해에 일어난 東歐의 脫共產主義化와 蘇聯支配로부터의 離脫, 그로 인한 알타체제의 崩壞 및 유럽統合作業의 加速化 등 大激變은 歷史의 한 章에 불과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歷史는 循環을 繼續할 것임.
- 그러나 美·蘇和解를 토대로 3次大戰의 威脅, 東·西對立과 유럽의 分열 등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舊秩序를 대신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과 갈등이 소요된다는 점이 憂慮되는 바임.
- '92年의 EC 統合과 獨逸統一은 유럽전체의 歷史흐름 속에서 달성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유럽의 新秩序 형성과 東歐의 經濟復興에 큰 역할을 할 것임.
- 이제 유럽의 모든 國家는 『하나의 共同體』로서의 自由 유럽을 熱望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어도 西歐에 있어서는 民族主義性向과 破壞的인 軍備競爭이 이미 사라지고 있으며, 美國·

蘇聯 兩國과 共히 友好적인 關係가 지속되기를 기대함.

- 이러한 國際情勢의 흐름은 150年前 프랑스 政治學者 토크빌이 예언하였던 美·蘇에 의한 世界支配가 終熄되었음을 의미하며, 美·蘇 支配體制라 할 수 있는 變태構造가 瓦解되고 있음을 示唆하고 있음.
- 그러나 極東地域에는 日·蘇간의 對立, 南·北韓間的 대결구조 등으로 인해 여전히 冷戰體制가 存續되고 있으며, 東歐에서의 利己的인 民族主義의 伸張, 南北問題, 環境汚染問題 등이 새로운 問題점으로 擡頭되고 있음.
- 統獨의 경험은 南·北韓關係 개선에 큰 教훈이 될 수 있으나 統一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條件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
  - ① 統一은 고집스런 共產體制를 柔和·開放化시키는 한편, 많은 國民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觀點에서 궁지와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며
  - ② 變化를 위한 政策轉換에는 長久한 歲月을 要하기 때문에 慎重한 접근이 있어야 하고
  - ③ 國際的 環境의 成熟도 필요함.
- 蘇聯이 北韓에 대해서 東獨에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것은 부정적이며, 아울러 中國이 北韓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北韓이 變化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임.
- 결국 우리가 원하는 秩序는 지난번 헬싱키 美·蘇頂上會談에서 兩國首腦가 강조했던대로 全世界 國家가 서로 협력하는 평화로운 질서이며, 이를 歷史循環의 立場에서 본다면 새로운 未來가 舊時代의 廢墟위에서 再創造될 것이고, 아시아에서도 美·蘇支配의 토크빌時代가 終結될 것으로 展望됨.



# 資 料

- 東·西獨法の 異質性과 法統一에 있어서의 문제점
- 北韓映畫의 現況
- 北韓音樂의 現況
- 北韓의 外國관광객 誘致 事業실태
- 金日成 가계우상으로 얼룩진 北韓地名
- 北韓 및 周邊動向日誌



## 東·西獨法の異質성과 法統一에 있어서의 문제점

다음 내용은 高麗大 法學研究所가 主催한 國際學術大會 (10.12 -13, 힐튼호텔)에서 發表된 「東·西獨法の異質성과 法統一에 있어서의 問題點」과 關聯된 主題論文을 要約·整理한 것임.

### 1. 獨逸統一에 대한 憲法的·國際法的 前提와 觀點

R.Steinberg(Frankfurt 大 教授)

- 10月 3日 獨逸統一이 이루어짐에 따라 「東獨」이라는 政治的·國際法的 存在는 사라지고, 東獨의 領土에 속해 있던 5個州는 獨逸聯邦共和國의 州로 編入되었음.
- 그간 獨逸은 1945年 5月 4日 戰勝國의 分割占領에 의해 典型的으로 國際法的 制約을 받아왔으나, 西獨基本法の 규정은 「獨逸」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여전히 權利能力을 保有하되, 自體 행위능력은 갖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
  - 獨逸聯邦共和國은 獨逸帝國의 「法的 承繼者」가 아니며 獨逸의 一部가 새로이 조직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部分的으로 同一空間을 점유하고 있을지라도 獨逸聯邦共和國의 主權은 基本法の 적용범위에 국한됨.
  - 따라서 東·西獨 基本條約이 비록 國際法上 두 國家間의 雙務條約이기는 하나,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包括的 國家인 「全獨逸」의 一部들이 맺은 條約이라는 점에서 특수한 內的關係를 규정한다는 이중성을 가졌음.

- 이같은 論理를 앞세워 西獨은 東西獨基本條約에 의해 東獨을 認定했음에도 불구하고, 獨逸國民의 國家的 統一達成 이라는 목표를 변함없이 추구해왔으며, 東獨國民에게도 統一의인 獨逸國籍을 활용, 西獨人과 같은 獨逸人으로 취급해왔음.

— 『聯邦共和國의 국가기관은 처음부터 2次大戰의 敗北後에도 獨逸이 存續한다는 점과 그 獨逸과 獨逸聯邦共和國이 주체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및 하나의 獨逸國籍을 갖는다는 점을 고수해왔으며, 基本條約締結 이후에도 獨逸내에 相互外國이 아닌 두개의 國家가 존재하며, 獨逸國民은 國際法上 共同體에 대하여 自由로운 自決權을 갖는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聯邦憲法裁判所 見解, 1987.10.21)

- 東獨의 경우, 最初憲法(49.10)에는 명시적으로 獨逸統一과 「全體獨逸國民」을 規定했으나, 1974年 憲法改正時 이 條項을 삭제하였으며 東獨을 社會主義國家로 규정, 西獨과 다른 별개의 國家라고 해석하였음.
- 東獨憲法상의 基本權은 自由主義 法治國家의 基本權과 표현이 비슷하나, 실질적인 政治的 條件 및 社會的 상황에 따라 다른 기능을 示顯해 왔음.
  - 예컨데 「居住移轉의 自由」에는 歷史的·傳統적으로 「移民의 自由」가 포함되는데, 障壁과 가시鐵條網, 脫走企圖者에 대한 處刑 등으로 이러한 基本權을 剝奪하였으며, 수십만의 정보요원(슈타시)들을 통해 個人, 社會 各部分을 통제해 왔음.
- 西獨의 基本法은 經濟領域에 있어서는 社會보장과 근로생활, 주거권, 소비자보호 등의 社會國家原理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체

적으로 볼 때, 「自由民主主義의 共同體」를 指向하는 憲法이라 하겠음.

- 또한 西獨政府와 함께 聯邦憲法裁判所가 統一思想을 固守해 왔으나, Carl Jaspers 와 같은 法哲學者들은 「個個人的 自由가 國家的 統一에 優先한다」면서 單一 獨逸國籍의 拋棄와 基本法上의 統一條項 폐지까지 주장하였음.
- 결국 兩獨間의 「通貨·經濟·社會統合條約」(1990.7.1 發效)에 의해 獨逸統一이 加速化 되었는데, 이 條約은 「社會主義的인 社會秩序 및 國家秩序의 基調에 관한 규정들은 더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식상 계속 유효한 東獨憲法에 優先하였는가 하면, 通貨權 등 東獨 統治權力의 일부영역이 西獨政府에 의해서 행사되었다는 先例를 남겼음.
- 또한 「統一條約」(8.31 調印)에 따라 西獨法律의 東獨地域에 대한 擴大適用과 東獨法律의 效力維持에 관한 원칙들이 규정되었으나, 落胎의 處罰性, 東獨政權 樹立以前 蘇聯軍 占領에 따른 國家報償 결정 등 몇가지 特異事項은 장래의 全體獨逸議會에 의해 결정토록 유보함으로써, 문제의 素地를 남겼음.
- 西獨의 基本法 23 조에 따라 東獨이 西獨聯邦에 「編入」됨으로써 西獨의 전체적인 國家法 및 경제질서가 既存의 獨逸領域에까지 원칙적으로 확장되었으며 憲法制定會議에서 새로운 共同憲法이 제정된 것(基本法 146 조)은 아니기 때문에, 獨逸統一의 달성은 東·西獨 兩國家가 과거의 혹은 새로운 全體 獨逸로의 결합을 의미하는 「再統一」이라 할 수 없음.
  - 이는 東獨이 단계적으로, 憲法的으로 「同等하게」 統一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東獨은 협상과정에서조차 獨

自的인 對應 憲法案을 제시하지 않았음.

- 그러나 1949 年에 제정된 基本法이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아 民主主義的 息결을 가졌듯이 第2次 統一條約만으로 統一에 대한 法節次的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새로운 「憲法制定」과 「國民投票」 문제는 12月以後 選출될 全獨逸聯邦議會에서 협의될 것임.
- 궁극적으로 第4次 「2+4 會談」(9.12, 모스크바)에서 戰勝 4 個國이 「全體로서의 베를린 및 獨逸과의 關係에서 自身の 權利와 責任을」 終結하고, 대신에 「統一獨逸이 對內外問題에 관하여 完전한 主權을 갖게 됨」으로써 이제야 비로서 2次 世界大戰의 前後處理過程이 終止符를 찍게되고 새로운 時代가 개막되었다고 하겠음.

## 2. 東·西獨의 責任法 比較

H. Kötz (Hamburg 大 教授)

- 獨逸統一以後에는 현재 西獨에서 시행되고 있는 獨逸帝國의 民法典(BGB: 1900 年 制定)이 東獨地域에도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장기적 觀點에서 볼때, 東獨의 責任法은 1975 年에 制定된 民法典(ZGB)에 根據를 두고 있기때문에 「現代的」 이라 할 수 있어 오히려 西獨 民法典이 改正 또는 보완되어야 할 것임.
- 더욱이 西獨民法典의 改正을 위한 요구들이 法政策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 ① 危險責任에 대한 一般條項 ② 特別法上 규정된 危險 구성요건 ③ 履行補助者의 責任에 관한 규정

④ 死亡人이 生前에 扶養했던 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규정 ⑤ 「減輕條項」 등은 西獨民法典이 수용할 수 있을 것임.

### 3. 法の 異質性과 同質性 — 刑法의 側面 —

Winfried Hassemer (Frankfurt 大 教授)

- 東·西獨은 제각기 다른 문화와 法秩序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法的 觀點에서 볼 때,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의 경험이 훨씬 많은 실정이지만, 歷史的으로 可變的이며 文化依存的인 自然法이 法統一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임.
- 統一된 現狀況에서는 國家나 사회제도와 관련한 法領域 (憲法, 社會法, 行政法)이 個人 및 일상생활과 관련있는 法領域 (家族法, 刑法) 보다 쉽게 統一될 수 있으며, 私生活 法領域은 완만한 統一過程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임.
- 兩獨間의 法統一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경과규정을 만들어 이질성을 克服해 나가야 하는데, 예컨대 ① 法院判決의 持續的 效力 ② 國際條約 ③ 公共業務 특히 ④ 私法活動의 持續的 遂行 및 ⑤ 犧牲者의 復權 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實體刑法내에도 비교적 持續性이 있는 領域(生命侵害犯, 器物損壞, 詐欺 등)과 그렇지 못한 領域(政治刑法, 反테러規定, 의사표현에 대한 處罰, 性犯罪, 落胎 등) 등 서로 의미가 다른 領域이 있는 바, 實體刑法의 改正은 ① 法治國家原則, ② 法益保護原則 ③ 比例性原則 ④ 刑法의 補充性 ⑤ 法律確定原則 ⑥ 刑事政策의 自由主義原則 등의 維持를 목표로 해야 할 것임.

- 實體刑法에 비해 政治的으로 더욱 敏感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刑事訴訟法의 改正을 위해서는 ① 法官獨立의 實質的 保障 ② 法官의 兼職禁止 및 終身職 保障 ③ 搜查節次上의 強制 處分의 細分化와 縮小 ④ 證據申請權의 保障 ⑤ 刑事裁判權에서 一般人이 擔當할 役割의 합리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특히 獨逸統一에 따르는 過去清算을 위해 惹起되는 題般問題의 處理에 있어서는 ① 法治國家原則에 反한 行爲禁止 ② 自由主義 法秩序에 不합되지 않은 「即席裁判」이나 刑罰 排除 ③ 法治國家的 限度를 넘는 強制處分 不使用 ④ 遡及效 禁止原則 등이 遵守되어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 볼때 統一刑法의 성공여부는 國內政治의 관심문제를 어느정도 法的으로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① 테러리즘 ② 特別法院 ③ 政治的 批判 ④ 麻藥犯罪 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Andersdenkende)에 대한 保安處分 등이 重要하다고 하겠음.

## 北 韓 映 畫 의 現 況

### 1. 北 韓 的 映 畫 政 策

- 北 韓은 政 策 的 배려에 의해 映 畫 創 作 活 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결과 北 韓 的 映 畫는 勞 動 黨 的 路 線 및 政 策을 반영하는 有 力 한 도구 및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이로 인해 北 韓 的 映 畫는 예술분야의 한 장르라기 보다는 體 制 維 持 및 住 民 思 想 教 養, 社 會 主 義 制 度 優 越 性 鼓 吹 등 을 위한 선전에 유용하게 기여하여 왔음.
- 특히 金 正 日이 著 述 했 だ 는 『 映 畫 藝 術 論 』 ( 1973.4.11 ) 은 主 體 思 想 과 主 體 的 文 藝 理 論을 映 畫 分 野에 獨 特 하 고 도 구 체 적 으 로 적 용 시 킨 文 獻 이 라 고 선 전 되 고 있 는 데, 1970年 代 中 반 이후 제작된 모든 北 韓 映 畫는 이 『 映 畫 藝 術 論 』에 절대 적 으 로 영 향 을 받 고 있 는 실 정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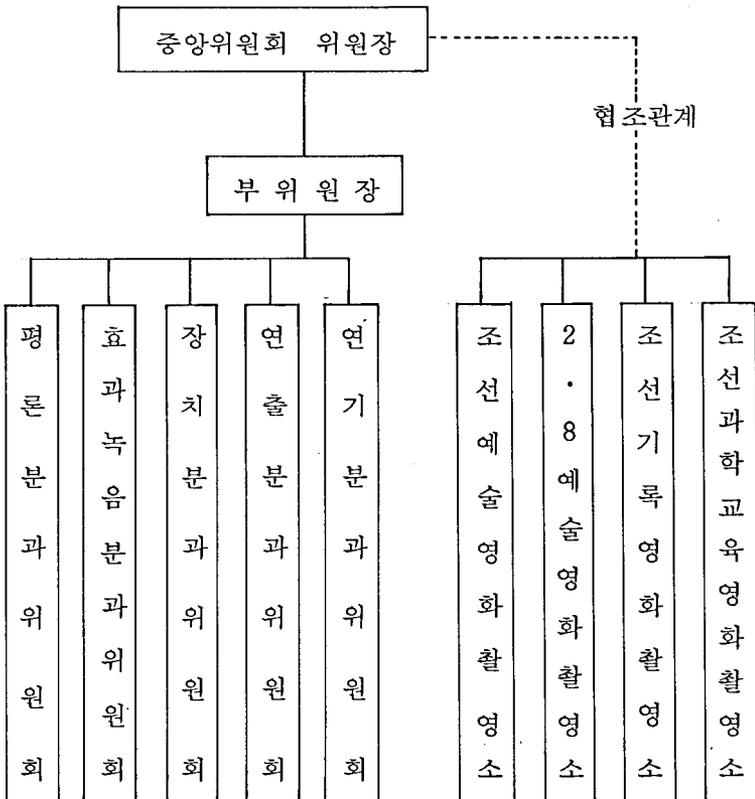
### 2. 北 韓 映 畫 製 作 的 組 織 體 系

- 北 韓 的 映 畫 藝 術 人 들 은 그 들 의 創 作 活 動에 대한 계획 작성에 서부터 黨 的 統 制를 받게 되어 있는 바, 文 藝 政 策 방 향 에 副 應 한 素 材 및 主 題로 시나리오 창작·촬영계획을 年·分 期·月 別로 作 成, 映 畫 人 同 盟·文 學 藝 術 總 同 盟을 거쳐 黨 文 化 藝 術 部 的 批 准을 받게 되어 있음.

— 특히 映畫製作에 대한 金正日의 관심은 至大하여 시나리오 작성, 配役 및 監督 선정, 심지어는 영화보급에 이르기까지 金正日이 관여하고 있음.

※ 北韓은 金正日이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등의 製作을 指導하였다고 宣傳

◀ 『朝鮮映畫人同盟』 構成圖 ▶



### 3. 『第1回 南北映畫祭』에서 上映될 北韓映畫

北韓의 映畫는 一般的으로 예술영화, 기록영화, 과학영화, 아동영화로 大별해 볼 수 있는데, 今번 第1回 南北映畫祭 ('90.10.10-15. 뉴욕)에서는 「예술영화」와 「기록영화」가 상영될 것으로 알려져 있음.

#### ◀ 藝術映畫 ▶

- 內容 : 일반적으로 『劇映畫』라고 일컬으며, 예술·오락성보다는 當局이 政해 준 主題에 罨매여 매우 단조롭고 圖式的인 경향이 농후한 政治宣傳·煽動 次元의 內容으로 一貫
- 主題 : 金父子 偶像化 및 忠誠心 提高, 社會主義制度 優越性 強調, 住民勞役 煽動, 韓·美 謀略 誹謗, 人民軍 勇敢性 讚揚 等

#### ◀ 記錄影畫 ▶

- 內容 : 藝術映畫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宣傳煽動 手段으로 이 용되고 있는데, 誇張과 操作이 많이 개입되고 있어 眞實성이나 眞빙성이 없는 것이 大部分
  - 主題 : 金父子 讚揚行事 및 行跡 날조 美化, 戰跡地 記錄, 韓國 社會相 誹謗, 自然景觀 및 北韓 社會主義 建設相 紹介等
- 第1回 南北映畫祭에서 上映될 北韓映畫를 살펴보면,  
 一 藝術映畫는 『도라지 꽃』,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달매와 범다리』,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조선아 달려라』 등 5편으로서 주로 政治色이 적은 郷土物, 歷史物, 啓蒙物로 構成되어 있고,

- 記錄映畫는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내가 본 평양』 등 2편으로서 自然景觀 및 平壤의 發展相을 紹介하는 內容으로 構成되어 있음.

藝術映畫

映畫名	內 容	上 映 時 間	製作機關	製作年度	備 考
도라지꽃	고향을 재건하려는 자와 꿈을 가지고 도회로 떠나는 자와의 갈등과, 세월이 흐른 뒤의 회환 등을 그린 영화	1시간 25분	조선예술 영화 촬영소	1987	제 1 회 비동맹 영화제 햇불금 상수상
안중근 이 등박문을 쏘다 (1. 2부)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각색한 영화로서 안중근 의사의 활약상을 그림	2시간	조선예술 영화 촬영소	1983 (?)	

映畫名	內 容	上 映 時 間	製 作 機 關	製 作 年 度	備 考
달매와 범다리	고구려시대의 애 국충절을 소재로 한 극영화	1 시간 30 분	조선예술 영화 촬영소	1983	
조선아 달려라	산골에서 외로운 투쟁을 벌이는 마라토너의 고난 과 승리를 그린 영화	1 시간 15 분	신 필 립 영 화 촬 영 소	1985	

記錄映畫

映畫名	內 容	上 映 時 間	製 作 機 關	製 作 年 度
금강산 I	금강산의 자연경관을 소개	2 시간	이광덕 제작 (교포)	1987. 9.
금강산 II	금강산의 자연경관을 소개	4 시간	이광덕 제작 (교포)	1987. 9.
묘향산	묘향산의 절경을 소개 한 관광 선전영화	30 분	조선기록영화 촬영소	1982
백두산	백두산천지 전경 및 삼 지연 혁명사적지 등을 통해 김일성을 신격화 하기 위한 선전영화	30 분	조선기록영화 촬영소	1978

## 4. 分析·評價

- 北韓은 지난 9月 서울에서 개최된 「第1次 南北高位級會談」을契機로, 「南北統一蹴球大會」개최 合意, 日本과의 國交樹立 態度 表明 등 對南政策 및 外交政策에 一連의 變化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注目됨.
- 금번 뉴욕에서 개최기로 한 「第1回 南北映畫祭」도 최근의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推進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살펴보면,
  - 內容面에서는 同 映畫祭에서 상영기로 한 北側의 輸出작들이 향토물, 역사물, 자연경관 紹介物들로 大宗을 이루고 있어, 加급적 南側을 자극시키지 않으면서 同 映畫祭를 원만히 持續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고,
  - 場所面에서는 同 映畫祭를 美國에서 개최기로 함으로써 南北間의 和解雰圍氣를 内外에 誇示, 日本과의 國交樹立 推進에 이어 美國과도 關係개선을 위한 사전포석의 하나로 풀이됨.
  - 그러나 時期的으로 보아 同 映畫祭(10.10~15)를 비롯하여 「統一音樂會」(10.18~24), 「統一蹴球大會」(10.9~13) 등이 모두 北韓의 勞動黨 創建紀念日(10.10)에 맞추어져 있어 北韓은 이들 行事를 그들의 政治目的에 이용하려는 底意를 드러내 보이고 있음.
- 이상과 같은 諸般 狀況 및 내용을 종합검토해 볼 때 北韓은 「總理會談」과 같은 政治會談과 並行하여 향후 非 政治的 分野에서의 交流도 점차 開放·擴大할 것으로 보여지나,

- 一 上記 行事들이 勞動黨 創建紀念日과 同時에 개최되도록 日程이 짜여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금번 行事들은 北韓의 政治的 目的에 最大한 利用, 一過性으로 끝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음.

## 北韓音樂의 現況

### 1. 音樂政策 및 基本性格

- 北韓은 音樂을 주민의 心性을 자극하여 思想敎養과 金日成父子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케하는 최선의 手段으로 간주, 音樂의 대중화, 集中 普及化 運動을 전개하고 있음.
- 北韓의 音樂은 다른 藝術部門과 마찬가지로 『社會主義的 事實主義』의 創作原則과 『主體文藝理論』에 입각하여 創作·演奏되고 있음.
- ※ 『社會主義的 事實主義』는 黨性·階級性·人民性和 革命性を 기본으로 하고 있고, 「主體文藝理論」은 黨과 首領에 대한 忠誠심을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음.
- 北韓의 音樂은 旋律面에서 蘇聯民謠와 中國風의 양식을 따르고 있고 노래는 우리의 國民歌謠式을 기본으로 하며, 唱法은 『鼻聲』 중심의 독특한 發聲法을 요구하고 있음.
- 北韓 音樂의 기본형태는 民族傳統音樂과 西洋音樂을 배합한 독특한 구성을 보이고 있음.

### 2. 北韓音樂의 特徵

#### 가. 一般的 特徵

- 우리와 달리 大衆音樂과 純粹音樂으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音樂體系에 포함되어 있음.

- 思想教養과 意思傳達에 역점을 두어 音律보다는 歌詞를 중시함. 따라서 器樂보다 聲樂을 중시함.
  - 西洋의 古典音樂은 對外用으로만 演奏되고 있을 뿐, 北韓 住民을 대상으로는 전혀 연주되지 않음.
  - 純粹한 형태의 우리 민족의 傳統音樂은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音階와 音色, 새로운 唱法과 변형된 歌詞 등으로 改造된 傳統音樂을 민족음악·민족악기라고 부르고 있으며, 민족악기와 서양악기를 혼합한 이른바 「配合管絃樂」같은 독특한 음악장르를 형성하고 있음.
- ※ 民俗樂器의 5音階를 12音階로, 現代音樂을 演奏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 판소리, 서도민요 등의 傳統聲樂曲에서 사용되던 濁聲 및 腹聲은 「씩소리」라 하여 사용하지 않음.

나. 分野別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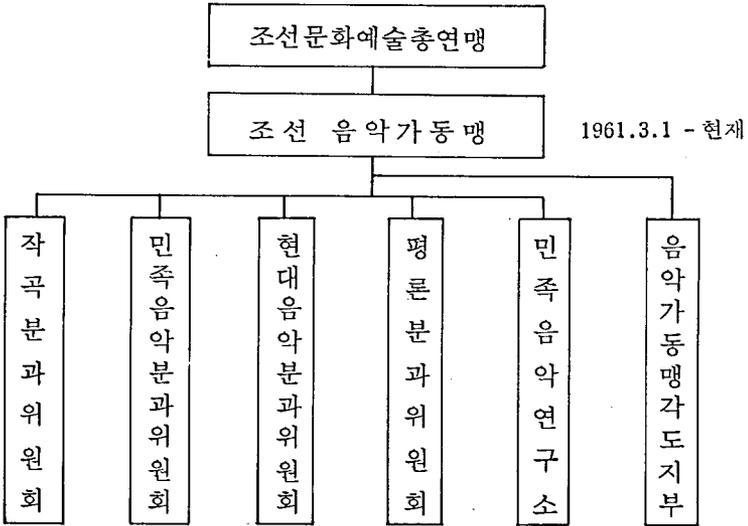
分 野	特 徵
歌 唱 曲	<p>—정치·선전목적을 지닌 가곡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p> <p>* 조선명곡 600 곡집에는 김일성 가계찬양곡 232 곡 (39%) 을 비롯 체제찬양, 혁명성, 노동의욕, 적개심 고취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 전부이며 순수 서정적인 가곡은 없음.</p> <p>—지식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작곡</p>

分 野	特 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음을 반음 올리는 것과 곡중 변조를 극히 삼가</li> <li>* 전반적으로 우리의 대중가요나 동요 수준임.</li> <li>- 김일성 찬양을 위한 독특한 장르 형성</li> <li>* 김일성 송가에는 가장 고상하고 유순한 발성법으로 김일성 앞에는 “아-”라는 감탄사와 가장 높은 음을 사용하며, 찬양가사는 서정시로 표현</li> <li>- 급격한 크리센토 (가창중 소리를 끊어 중단하는 것) 를 사용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창법구사</li> </ul>
管絃樂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몇개의 선율을 중심으로 전개된 단순한 유행가풍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li> <li>- 특정한 음을 자주구사, 변화가 없음</li> <li>- 후기 낭만식의 3 관 편성이고 단순한 리듬</li> <li>* 누구나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사</li> <li>- 현대 작곡기법 전혀 무시</li> </ul>
國 樂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약한 국악 기반위에서 출발</li> <li>* 6.25 당시 임동실·조상선·임소향 등 월북 창작인을 주축으로 기반형성</li> <li>- 이론적 바탕없이 출발, 전통성·자율성·예술성 결여</li> <li>- 전통국악, 악기의 변조</li> <li>- 국악의 양악화 경향</li> </ul>

### 3.北韓音樂界의 組織構成

#### 가. 組 織

- 北韓의 音樂界는 文藝總 傘下 朝鮮音樂家同盟으로 단일화 되었음.



- \* 文藝總은 1946年 設立된 北朝鮮 文學藝術總同盟의 後身으로 임화 등 越北文人이 肅清된 이후 現在の 名稱으로 再組織 되었음.
- 現在 朝鮮音樂家同盟 委員長은 김원균으로 1989.6 死亡한 이 면상의 뒤를 이어 委員長에 올랐음.
- \* 김원균은 「金日成 將軍의 노래」 作曲者임. (汎民族 統一 音樂會 招請當事者)

## 나. 任務와 機能

- 音樂家들이 黨의 文藝政策을 숙지토록 하며 이를 철저히 관철토록 指導·統制
- 音樂家들이 黨이 요구하는 작품을 適時에 創作해 내도록 創作 指導事業
- 音樂家들 속에서 黨의 唯一思想 體系를 確立하고 共產主義 教養을 실시
- 音樂家同盟 正盟員, 또는 候補盟員의 加盟과 출맹 권한으로 音樂界 登用 및 逐出問題를 결정
- 音樂家同盟 中央委員會 會議를 통하여 音樂家들에 대한 黨的인 統制
- 音樂家同盟 正盟員들에 대한 生活惠澤 (食糧·衣服·配給 등)을 보장

## 다. 主要 公演團體

- 中央 및 各 道別로 總 26個가 있고, 이중 純粹音樂 團體는 國立交響樂團 뿐으로, 나머지는 音樂·舞踊·歌劇 등을 함께 公演하는 綜合公演團體임.

北韓의 主要 公演團體

團 體 名	設立年度	所 在 地	備 考
국립교향악단	1965.11	평 양	단원수 180 명
피바다가극단	1971	평 양	단원수 380 명 단장 김원균
만수대예술단	1946	평 양	1969, 평양 가극단에서 개칭 총장 김광호
평양예술단	?	평 양	1972, 모란봉예술단에서 개칭 단원수 약 300 명 1985, 고향방문단교환시 서울에서 공연

- 專門 音樂人 養成機關은 人民班 과정에서 大學과정까지 연결 되어 있는 平壤音樂舞蹈學校를 비롯 正規 音樂大學인 平壤音樂大學, 各 道에 1 개씩의 藝術專門學校 등이 있음.

라. 公演施設

- 北韓의 公演藝術이 音樂·舞蹈·美術을 綜合한 大規模의 歌劇을 위주로 하므로 施設 또한 大規模임.

## 北韓의 主要 公演施設

명 칭	위 치	규 모
평양대극장 (1960)	중구역 오탄동	부지 75,000 $m^2$ 건평 30,000 $m^2$ 관람석 2,300 석
만수대예술극장 (1975)	중구역 만수동	부지 5 만평 관람석 5,000 석
2.8 문화회관 (1975.10)	모란봉 구역 비파거리입구	연건평 8 만 $m^2$ 7 층건물 관람석 1,000 석 객 실 600 개
인민문화궁전 (1974.4)	천리마거리	총건평 5 만 2 천 $m^2$ 대회의장 3,000 석 소연회장 700 석, 600 석 100 석 (3개)
모란봉극장 (1960.8)	모란봉구역	관람석 1,000 석
동평양극장 (1988.8)	대동강구역 문수동	관람석 2,000 석
청년중앙회관 (1988.4)	대동강구역 문수동	관람석 7,000 석

#### 4. 汎民族 統一音樂會의 性格

- 汎民族 統一音樂會는 지난 8月 15日 平壤에서 개최된 『汎民族大會』의 기본정신에 따라 北韓主導下에 실시되는 최초의 分野別 行事임.
- 이 행사는 88年 7月 1日 在獨音樂家 윤이상이 제기한 바 있는 「南北韓 民族合同音樂祝典」의 때늦은 실현이라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
- 또한 이 音樂會는 南北統一蹴球大會, 第1回 뉴욕 南北映畫祭 등과 함께 勞動黨 創黨 45周年을 대대적으로 축하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政治性을 내포한 행사임.

#### 5. 分析 및 評價

- 北韓은 汎民族 統一音樂會에 앞서 第9次 윤이상 音樂會를 開催, 윤이 作曲한 「광주여 영원히」, 「내나라 내민족이여」 등 反韓的인 音樂을 통해 초청된 韓國 音樂인에게 統一音樂會의 성격과 분위기를 알려 그들의 의도대로 이끌 속셈을 보이고 있고,
- 訪北 音樂人들과의 宴會·對話·觀光 등을 통해 北韓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들 體制의 優越性을 과시. 이를 南쪽으로 전파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음.
- 이에 비해 訪北 音樂人들은 우리의 民族傳統音樂을 主軸으로 童謠風의 歌曲을 곁들여 比較的 純粹音樂的인 측면에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표단의 규모와 레퍼토리로 볼 때 北側

에 어떤 影響力을 미치기 보다는 北의 분위기에 휩쓸려 명분상의 汎民族 統一音樂會가 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汎民族 統一音樂會는 南側代表의 참가로 명분상 實質的인 汎民族 統一音樂會라는 인상을 줄 것이나 내용면에서는 北側의 意圖에 따라 실시되는 政治 宣傳場이 될 가능성이 우려됨.

## 北韓의 외국관광객誘致사업실태

최근에 이르러 北韓은 外國觀光客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26일 北韓의 「國家觀光總局」 선전국 국장으로 있는 「조춘심」은 최근 4년동안 北韓을 찾아드는 외국인 관광객수가 1.5배로 늘어났고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무려 1.4배나 늘어날 전망이다이라고 했다.

이러 조춘심은 北韓에서의 관광유치사업은 195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그간 여러가지 사정으로 부진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觀光資源 조사연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관광지들이 현대적으로 꾸러지고 있으며 항공기를 비롯한 각종 수송수단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외에도 최근 北韓의 선전매체들이 밝히고 있는 관광유치사업은 외국관광객의 요구에 따라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등산 관광을 비롯하여 사냥관광, 체육관광, 교육관광, 역사자료조사관광, 치료관광, 동식물조사관광 등 다양한 목적의 관광코스가 마련되었고 특히, 지난 87년 9월부터는 世界觀光機構(WTO)에 가입, 관광소개 영화교류, 관광안내책자 교류 등 관광정보 교류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北韓은 觀光事業을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보는 등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84년

9월 제정 공포한 娯樂法에 外國과의 合作對象 5개분야중 觀光事業을 포함시킴으로서 觀光事業에 대한 인식을 달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북한은 적극적인 외국인관광객 유치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85년 5월에는 政務院 산하에 「國家觀光總局」을 설치, 그 밑에 「國際旅行社」와 「青年旅行社」를 두어 실무를 관장케 했고 87년에는 「세계관광기구」에 가입과 함께 북한의 각 商業大學에 觀光學科를 설치했다.

이어 89년 7월에는 재미 LA거주 교포와 「金剛山國際觀光會社」를 합작으로 설립, 본격적인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지금까지의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은 86년 홍콩·호주의 소규모 관광단 최초유치를 비롯하여 87년도엔 39명으로 구성된 일본인 관광단의 방북, 89년 하반기부터는 在美교포 관광단의 북한방문이 실시되고 있다.

#### ◆ 1백여개 관광코스 選定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1월 북한은 홍콩의 「조인월드국제여행사」 주선으로 홍콩,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기자, 기업인 등 115명을 특별전세기편으로 초청했고, 지난 4월부터 평양-심양-홍콩을 잇는 중국민항기 소속 전세기를 부정기적으로 취항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北韓은 外國觀光客 誘致를 위해 평양, 원산, 개성, 남포, 함흥, 금강산, 묘향산 등지에 100여개의 관광일정(관광코스)을 선정했을뿐 아니라 이들 코스에는 관람, 휴양, 등산, 스포츠 등

일반관광코스외에도 태권도연수, 무용표기법연수, 감탕치료, 한방치료, 동식물관찰, 신혼부부관광을 위한 특별코스도 개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북한은 외국관광객을 위해 英語, 佛語, 독일어, 중국어, 露語, 日語 등 전문통역원을 양성하고 있고 세계 약 200여개의 관광회사와 체인을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 북한의 외국관광객 수용숙박시설은 평양에 12,000명, 지방에 18,000명의 수용규모를 갖추고 있고, 관광객의 수송을 위해 원산-금강산간의 고속도로 완공, 평양-회천간·평양-개성간 고속도로 공사추진, 원산-해금강(삼일포)간의 여객선, 대동강상의 호화유람선을 취항시킨 바 있다. 또한 신의주시에 조교건설, 백두산 천지에 100명이 탑승하는 궤도식 삭도를 건설중이며, 주요 관광지에 국제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등의 설치와 평양교외의 태성호에 18홀의 골프장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에 이르러 북한은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나름대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80년대 중반이후 외국관광객 유치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 이유는 부족한 外貨를 손쉽게 획득해 보자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겠지만 이와 더불어 북한을 해외에 널리 선전하고 관광선진국으로 날로 발전해 가고 있는 한국의 관광사업에 대응하겠다는 생각도 크게 작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관광사업은 북한주민의 경제생활여건, 여행의 자유가 유보되고 있는 사회적 여건 등으로 對內觀光이 전면 不許된 상태이므로 기대했던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최근의 적극적 외국관광객 유치사업으로 외국관광객수가 다소 늘어나기는 했으나 백두산, 청진, 함흥, 해주 등지의 주요 관광지역의 개방을 주저하고 있고 기존 관광시설의 불비, 교통·통신의 불편과 지나친 관광객 통제 등으로 관광사업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비록 제한적인 범위이긴 하나 北韓은 外國觀光客의 유치를 위해 海外에서의 선전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은 「朝鮮國際旅行社」에서 외국관광객에게 전파할 목적으로 제작한 북한에 대한 관광 소개책자인 「Tourism in DPR of Korea」이다.

英文, 日文, 佛文, 獨文 등 수개국어로 출판된 이 소개책자에는 북한의 관광코스를 비롯하여 관광프로그램, 비자발급 절차, 세관 관련사항, 화폐교환, 호텔현황, 국제열차 및 항공시간표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 책자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 선정한 외국인 관광코스는 평양 및 근교에 2박 3일 코스를 비롯하여 3박 4일코스가 있고 평양-개성간 4박 5일 코스, 평양-묘향산간 4박 5일코스, 평양-금강산간 5박 6일코스, 평양-묘향산-개성간의 6박 7일 코스, 평양·원산·금강산·개성·묘향산·남포를 잇는 15박 16일코스가 있다.

#### ◆ 골프관광코스도 마련

특별관광코스로는 골프를 목적으로 하는 평양-남포간의 4박 5일, 평양-남포-개성을 잇는 4박 5일, 평양-남포-묘향산을

을 잇는 5박6일, 평양-원산-금강산을 잇는 5박6일 등 4개 코스가 있고 태권도학습을 위한 39박40일의 초보자코스과 22박23일의 중급코스가 있으며 무용표기법학습을 위한 7박8일의 전문가코스, 14박15일의 초보자코스, 감탕치료를 위한 25일에서 40일에 이르는 코스, 등산을 위한 묘향산코스와 금강산의 2개코스가 있다고 한다.

북한이 소개하고 있는 주요 관광일정을 보면 평양의 2박3일 코스는 평양시내 및 모란봉에 하루, 만경대·대성산·평양지하철·평양교예극장 등에 하루, 대동문·용왕루·평양종 등에 하루로 되어 있고, 평양-개성의 4박5일코스는 평양시가와 만경대·박물관·교예극장 관람 등에 이틀, 공민왕릉·인삼밭·판문점 등에 하루, 평양귀환후 인민대학습당·역사박물관·학교 등에 하루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

평양-원산-금강산-개성-묘향산-남포 등 최장기 15박16일 코스는 제 1, 2일은 평양, 제 3일은 원산, 제 4, 5, 6일은 금강산일대, 제 7일은 원산, 제 8일은 평양경유남포, 제 9, 10일은 남포에서 묘향산, 제 11일은 평양시내, 제 12일은 개성·판문점, 제 13, 14, 15일은 평양시내로 되어 있다.

#### ◆ 平壤市內 관광호텔 10 여개

북한의 해외관광객 유치책자에 소개된 관광비자 발급절차는 방북희망자가 편지나 전보를 비자신청을 하고 「조선국제여행사」의 승인을 득한후 해당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며 북한주재대사관이 없는 국가의 여행희망자는 북한의 국경지역의

「조선국제여행사」에서 비자를 받도록 되어 있다.

세관 관련사항으로서는 북한으로의 반입금지품목으로 독약, 마약, 무기 및 폭발물, 라디오 및 관련부속으로 되어 있고 반출금지품목은 담배씨를 포함한 씨앗류, 담배, 엽연초, 역사유물, 문화재, 등이다.

화폐교환은 북한의 외환교환소와 貿易은행에서 교환할 수 있는데 교환이 가능한 外貨로서는 미국화, 싱가포르달러,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영국파운드, 프랑스프랑, 스위스프랑, 도이취마르크, 일본의 엔화와 공산권국가의 화폐 등이다.

북한이 소개하고 있는 관광호텔은 평양 시내에 객실 500개의 고려호텔, 객실 465개의 청년호텔을 비롯하여 창광산호텔, 대동강호텔, 해방산호텔, 보통강호텔, 여행자호텔, 안골호텔, 유경호텔, 양각도호텔 등 10개이고 지방은 객실 228개로 소개된 묘향산의 향산호텔을 비롯하여 청봉호텔·청춘호텔 등 묘향산에 3개, 함흥에 신흥산호텔, 원산에 송도원호텔, 금강산에 금강산호텔, 개성에 천남산호텔, 혜산에 혜산호텔, 백두산일대에 삼지연신호텔과 은수봉호텔, 남포에 항구호텔 등 11개이다.

(내외통신 711호, '90. 9. 28.)

## 金日成가계우상으로얼룩진 北韓地名

北韓은 지난 8월 12일 양강도의 풍산郡을 「김형권郡」으로 개칭했다.

金日成의 작은 아버지 이름을 딴 것이다.

北韓은 이날 발표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서 그 같이 개칭한 이유에 대해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이신 김형권 동지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라고 주장했다.

이 「정령」에서 北韓은 김형권이 「애국적이고 혁명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영도하신 백산청년동맹·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조선혁명군의 중요 직책에서 사업했으며 항일무장투쟁에서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렸다」고 소개하면서 이에 따라 또 풍산읍도 「김형권읍」으로 이름으로 바꾸었다고 밝혔다.

### ◆ 81년부터 우상지명 등장

金日成家系 인물의 이름이 노골적으로 地名에 등장한 것은 지난 81년 8월 「김정숙郡」이 처음이었다.

金日成의 前妻이며 金正日의 생모(生母)의 이름인데 「김정숙郡」으로 바뀌기 전의 地名은 양강도 신파郡이었다.

두번째는 88년 8월 양강도의 후창군(厚昌郡)이 「김형직郡」

으로 개칭된 것이었다.

金日成의 죽은 아버지 이름을 딴 것이다.

이어 4개월 후인 88年 12월에는 백두산사자봉의 자락에「正日峰」이라는 地名이 생겨났다.

金日成의 아들이며 權力세습자인 金正日의 이름을 딴 것으로 특히 이「正日峰」은 金日成이「抗日 빨치산활동의 근거지」로 삼았다는 장군봉과 연결되어 北韓청년학생들의 필수적인 행군코스가 됐다.

이어 네번째가 풍산郡이「김형권郡」으로 바뀐 것인데 이러한 金日成家系 인물의 이름을 딴 地名 개칭은 크게 두가지 면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번째는 개칭된 地名이 모두 양강도(兩江道)지방에있는 행정구역이라는 점이고 두번째는 地名 개칭과 함께 반드시 해당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고등중학교도 金日成家系 인물의 이름으로 바뀌어 나타났다는 것이다.

종전 咸南지방의 惠山·보천·三水·甲山과 咸北의 白岩郡 등이 묶여 만들어진 양강도는 北韓에서는「혁명의대 노천박물관」으로 일컬어 지고 있다.

金日成 뿐아니라 그의 家系 인물들인 金亨稷·金亨權·金鐵柱(金日成의 동생)·강반석(金日成의 어머니)·김정숙 등의 항일 빨치산활동 본거지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관련 北韓은 특히 金日成의 혁명전적지의 경우「보천보혁명전적지」등 모두 9개 가운데 7개를, 金日成家系 인물의 혁명사적 및 전적지는 거의 대부분을 이 지방에 조성해 놓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보면「파발혁명전적지」(김형권)·「봉

화 혁명사적지」(김형직) 등이다.

「파발 혁명전적지」는 지난 8월 26일에, 「봉화혁명사적지」는 73년 3월 23일에 문을 열었으며 이러한 점들이 양강도지방의 地名이 金日成 家系 인물의 이름으로 개칭된 이유가 됐다.

「봉화혁명사적지」에는 그동안 약 9백여만명의 北韓 주민들이 동원돼 참관한 것으로도 전해진 바 있다.

#### ◆ 각급 학교 이름도 함께 개칭

地名 개칭과 함께 해당지역의 대표적 고등중학교 이름이 바뀌는 것은 金正日 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청소년 사상교양과 관계가 있다.

즉 金日成家系 인물들을 우상화시켜 金日成 - 金正日로 이어지는 후계 체제를 자연스럽게 합리화시켜 보려는 의도라는 것인데 「김정숙 여자 고등중학교」·「김형권 고등중학교」 등이 이의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같은 「고등중학교」이름 개칭은 모두가 地名개편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히 김형직과 김정숙 및 강반석의 경우에는 이들의 이름을 딴 대학 및 특수학교까지 등장했다.

平壤사범대학과 惠山 제2사범대학의 이름을 바꾼 「김형직 사범대학」 및 「김정숙 사범대학」, 그리고 南浦혁명학원이 「강반석 혁명유자녀학원」으로 개칭된 것이 그것이다.

「강반석 혁명유자녀학원」은 만경대 혁명유자녀 학원·해주 혁명유자녀학원 등과 함께 北韓의 3대 특수학교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약 7백명의 혁명 1세대 및 6·25 참전 희생자의 자녀가 11

년간 특별우대교육을 받고 있다.

### ◆ 함남·북 5개군 이름도 바뀌

한편 北韓은 이같은 노골적인 地名 개칭외에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金日成 - 金正日을 찬양·선전키 위해 咸南·北 5개군의 이름도 바꾸었다.

웅기郡 → 선봉郡, 경원郡 → 새별郡, 명간郡 → 화성郡, 五老郡 → 영광郡, 퇴조郡 → 낙원郡으로 개명된 것인데 「새별」·「영광」 등은 金正日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낙원郡」은 金日成 - 金正日 체제가 「지상낙원」이라는 뜻에서, 「선봉郡」은 金日成부자세습체제를 앞장서서 옹호·보위 하자는 의도에서 이름이 붙여졌으며 이와 비슷한 뜻에서 황해남도의 송화郡 일부가 과일이 많이 난다고 해서 「과일郡」으로 명명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平壤이나 지방 주요도시의 거리에는 전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붉은거리·전우동(戰友洞)·낙원구역·노동자구역·흰빛洞 등의 이름이 붙여졌는데 특히 노동자 구역이라는 이름은 北韓에 대략 2백 50개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의 이같은 地名의 改名은 모두가 金日成 - 金正日 세습체제를 선전하려는 정치적 목적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으로 미루어 앞으로 유서 깊은 平壤市나 開城市가 「金日成특별市」 등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크게 우려되고 있다.

◆ 金日成 家系 인물 관련 地名

옛 이름	바뀐 이름	비 고
신 파 郡	김정숙 郡	김정숙 사범대학 김정숙 여자고등중학교
후 창 郡	김형직 郡	김형직 사범대학 봉화혁명사적지
풍 산 郡	김형권 郡	김형권 고등중학교 파발혁명전적지
응 기 郡	선 봉 郡	金父子체제 보위 선동
경 원 郡	새 별 郡	金正日 상징
오 로 郡	영 광 郡	金正日 찬양
퇴 조 郡	낙 원 郡	金日成父子체제 선전
명 간 郡	화 성 郡	//
백두산사자봉 마지막봉우리	正 日 峰	백두산 밀영 조작된 金正日 출생지

(내외통신 '90. 9. 28.)

## 北韓 및 周邊動向 日誌

日字	北 韓	韓 國
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옥 부주석, 중국 楊尙昆 주석을 北京 인민대학 습당에서 면담 (중앙방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北 올림픽委會 부위원장, 9.23일부터 北京아시안게임 공동응원단을 구성키로 合意</li> </ul>
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옥 부주석, 중국 江澤民 총서기 면담 (중앙방송)</li> <li>○ 재미교포 김계용목사 가족 및 관계부문 일꾼들, 목사의 사망 (9.1) 경위·원인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鄭東星 체육부장관·北韓 金有順 체육지도위원장, 南北體育會談을 조속히 재개키로 合意 (조선일보)</li> </ul>
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 自民黨·社會黨 대표단, 직행특별기편으로 평양 도착</li> <li>— 단장 : 自民黨—前 부수상 가네마루신, 社會黨—中 執委 부위원장 다나베 마코도</li> <li>○ 『北赤』 위원장 대리 이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무부, 페르시아灣사태 따른 支援金 規模 및 內譯 발표</li> </ul>

周 邊 4 强	其 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11 차 아시안게임, 北京에서 개막</li> <li>○ 蘇 言論, 북한 “민주조선” 紙의 韓·蘇 修交 비난글을 반박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스크바방송, 프라우다紙 등</li> </ul> </li>   <li>○ 蘇 최고회의, 500 일내에 시장경제로 전환키 위한 계획을 잠정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5 일까지 보다 구체적인 최종 개혁안을 제출토록 요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외무장관, '91 년 임대 종료후 自國內 美軍기지 사용은 상업적 측면에만 국한한다고 발표</li>   <li>○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 이라크의 쿠웨이트 병합은 결코 번복될 수 없다고 선언</li> <li>○ 캄보디아 훈센총리·시아누크 공, 국가최고평의회 (SNC) 지분문제에 合意 (AFP 통신)</li> <li>○ 西獨 겐서 外務長官, 統獨後 平壤 駐在 大使館 폐쇄 방침 表明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욕, 제 45 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韓·西獨 외무장관 회담중 언급</li> </ul> </li> </ul>

日字	北 韓	韓 國
9.25	<p>호, 조선학생위원회가 연·고대 총학생회에 보내는 편지를 방송을 통해 공개 (중앙방송)</p> <p>○ 로동당대표단—日 自民黨·社會黨 대표단간 회담,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 (연합통신)</p> <p>— 가네마루: 국교 정상화 전에도 보상 용의 표명, 상호연락사무소 설치제안</p> <p>— 김용순 당비서: 보상의 절차문제 관련 의견제시</p> <p>○ 국제기자강습 개강식,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중앙방송)</p>	<p>○ 南北高位級會談 책임연락관 접촉 진행</p> <p>— 제 2 차 대표접촉을 10.5 일 갖기로 합의</p> <p>○ 제 1 회 “서울平和賞” 시상식,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p> <p>— 사마란치 IOC 위원장 수상</p> <p>○ 현홍주 駐 유엔대사, 뉴욕 타임즈紙 寄稿文을 통해 한국의 유엔가입 當爲性을 力說</p>
9.26	<p>○ 이종옥 부주석, 중국방문을 마치고 귀환</p> <p>○ 김일성, 日 自民黨·社會黨 대표단과 묘향산 會議場에</p>	<p>○ 崔浩中 外무장관, 日 外相에게 北韓 개방 유도위한 협력을 요청 (일본 교토통신)</p> <p>— 유엔총회 참석중 회동</p> <p>○ 韓·美 外무장관 회담 개최</p> <p>— 美國, 한국의 유엔가입</p>



日字	北 韓	韓 國
9.27	<p>서 會談 (연합통신)</p> <p>— 가네마루 自民黨 대표 : 다나베 사회당 대표 : 가이 후 총재 · 도이위원장 의 친서 전달, “과거” 사 죄</p> <p>— 김일성 : 억류 후지산號 선원에 대한 “이해와 결 단” · 양국관계 개선 회 망표시, 핵무기 제조설 부인</p> <p>○ 北韓, 駐 나미비아 대사에 김병기 임명</p> <p>○ 北韓—日本 정부실무자 접 촉, 평양에서 진행 (중앙 방송, 연합통신)</p> <p>— 쌍방 외교, 무역, 항공 운수, 체신부문 관계자 참석</p> <p>— 북한 : '90.11월부터 조 건없이 국교정상화 교섭 을 시작하자고 제의</p> <p>○ 로동당—日 自民黨 · 社會黨</p>	<p>및 韓 · 中 관계개선에 협 조 다짐</p> <p>○ 韓 · 베트남 國際學術會議 개최</p> <p>○ 『전대협』, “1천개학과 방북”을 내년 8월 15일까 지로 연기한다고 발표</p> <p>○ 韓 · 헝가리 相互 關稅引下 合意 (연합통신)</p> <p>○ 柳宗夏 외무차관, 야나기 駐韓 日大使를 불러 日—北 韓간의 經協 · 배상 약속의 해명을 요구</p> <p>○ 北京, 아시안게임 南北기자 단, 친선모임 개최</p> <p>— 상대방 비난 지양, 취재 의 공동보조 등 “아시안 게임 보도에 관한 기본합 의문” 서명</p>



日字	北 韓	韓 國
<p>9.28</p>	<p>대표단장간 회담, 평양에서 진행 (중앙방송)</p> <p>— 식민통치 및 45년간 손실에 대한 日의 사죄, 국교정상화, 후지산호 선원 석방 ('90.10월중) 문제 등 논의</p> <p>○ 김일성, 日 정당대표단의 가네마루 전 부총리와 묘향산에서 회담 (연합통신)</p> <p>— “과거”에 대한 보상, 양국관계개선, 후지산호 선원 석방문제 등 중점 협의</p> <p>○ 로동당-日 社會黨·自民黨 間 회담,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p> <p>— 양국간 조기수교 및 보상문제 관련 8개항 공동선언 채택</p> <p>○ 日 自民黨·社會黨 대표단, 귀국</p> <p>○ 北韓, 최근 日本에 地下자원 공동개발 제의 (일본 아</p>	<p>○ 韓國·말리, 大使級 외교관계 수립</p> <p>○ 韓·中 외무장관, 亞·太 지역 외무장관 만찬회동에서 첫 회담 (연합통신)</p> <p>— 양국관계 개선문제 등의 건 교환</p> <p>○ 현대그룹 소속 경비행기 1대, 비무장지대 인접상공 비행중 귀환</p> <p>— 항법착오로 항로 이탈</p> <p>○ 정부, 白基玩 통일문제연구소장의 訪北을 불허 통보</p> <p>○ 정부, 駐 쿠웨이트 대사관을 잠정 폐쇄 (외무부 발표)</p>



日字	北 韓	韓 國
9.29	<p>사히 신문)</p> <p>— 석탄, 철광석, 아연 등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개풍군에 남한 전투기 침입 주장 (중앙방송)</li> <li>○ 조선인민군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 선구자대회, 2.8 문화회관에서 개막 (중앙방송)</li> <li>○ 조선인민군 3대혁명붉은기쟁취 선구자대회 폐막 (중앙방송)</li> <li>○ 제 3차 冬季 아시안게임 삼지연조직위원회, 北京에서 연회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張忠植·김형진 남북체육회담 남·북측 대표, “남북통일 축구경기대회” 개최 방침 발표 (北京, 기자회견)</li> <li>○ 崔元碩 대한탁구협회장, 서울 월드컵 복식탁구대회 (11.1)에 김득준 북한탁구협회장을 초청</li> <li>○ 韓·蘇 과학기술협력협정 가조인</li> <li>○ 韓·中, 大連과 서울에 무역사무소를 교환 설치키로 원칙합의 (한국일보)</li> </ul>

周 邊 4 強	其 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在蘇韓人協, 최근 “고려일보”를 국가출판위원회에 정식 등록 (모스크바 방송)</li> <li>- 기존 “레닌기치”를 계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단독 유엔가입 입장을 담은 한국측의 공식 서한을 9. 28일 公開</li> <li>○ 西獨 헌법재판소, 12.2일 예정 全獨 선거를 위헌이라고 판결</li> </ul>

日字	北 韓	韓 國
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움의 천리길상” 마라톤 대회 · “소년탁구왕컵” 쟁취경기대회 등 폐막 (중앙방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蘇,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li> <li>— 유엔본부에서 양국 외무장관합의서 서명, 공동 커뮤니케 발표</li> </ul>
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朴吉淵 유엔대표부 대사, 유엔 『단일의석 동시가입』 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언급 (유엔 安保理 의장 앞 서한)</li> <li>○ 김정일의 장자산 방문 40돌 기념 자강도 보고회 진행 (중앙방송)</li> <li>○ 북한-베트남 경제 및 과학 기술협조위 제 2차회의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4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여의도 광장에서 진행</li> <li>○ 국군합동참모본부 창설</li> </ul>
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韓, 日에 國交協議(11.1) 대상자를 차관급으로 요청 (日本닛케이신문)</li> <li>○ 평양방송, 北京 아시안게임에서의 남북공동응원 소식 보도</li> <li>— 사격경기 및 남북여자 축</li> </ul>	

周 邊 4 強	其 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蘇  최고회의, 종교의 자유 최종 승인</li> <li>○ 在蘇 고려인협회, 타시켄트에서 회의 진행중 (모스크바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지역 한인대표들 참석</li> <li>- 협회 강령·규약 채택 문제 등 토의</li> </ul> </li> <li>○ 중국 錢其琛 외교부장, 韓·中 접근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 (AFP 통신)</li> <li>○ 蘇 연방·리투아니아공화국, 동등한 자격으로 경제 및 무역관계를 수행키로 합의 (AP 통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東·西獨 基民黨, 合黨</li> <li>○ 美·蘇·佛·英, 獨逸에 대한 권리 포기협정 서명 (로이터 통신)</li> <li>○ 대만, “국가통일협의회 (NUC)” 를 설치 (AFP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의 對 중국정책을 지휘</li> </ul> </li> </ul>

日字	北 韓	韓 國
10.3	<p>구경기에 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黨·政 간부들, 추석을 맞아 혁명열사능 및 애국열사능 참배 (중앙방송)</li> <li>○ 평양 시민들, 추석을 맞아 혁명열사능·애국열사능을 참배하고 조상의 묘에 성묘 (중앙방송)</li> <li>○ 孫成弼 駐蘇 대사, 최근 귀임 (일본 지지통신)</li> </ul>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 論文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발표</li> <li>— “근로자” ’90년 제 10호에 게재</li> <li>○ 중앙방송, 10.3일의 東西獨 통일을 보도</li> <li>○ 제 5차 전국 침구학과학 토론회 진행</li> <li>— 10.2-4, 평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崔浩中 외무장관, ’91년 말까지는 中國과 修交하겠다고 언급 (기자회견)</li> <li>○ 韓·蘇 체육교류협정 체결</li> </ul>

周 邊 4 強	其 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蘇 외무장관 회담, 뉴욕에서 개최 (연합통신)</li> <li>— 유럽재래식 군사력 (CFE) 감축 협정의 주요사안에 원칙적 합의</li> <li>○ 中國·싱가포르,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li> <li>○ 中國 정부대변인袁木, 중국은 한국과 非政府 차원의 무역대표부 설치 문제를 협의중이라고 언급</li> <li>○ 蘇聯 최고회의, 東獨과의 우호협력조약을 폐기 (타스통신)</li> <li>○ 蘇 고르바초프 대통령, 도매가격 자유화 포고령 발표</li> <li>— '91년부터 기업들이 정부설정 범위내에서 도매가격 협정</li> <li>○ 中·蘇, 국경배치 병력 감축 회담 개최 (타스통신)</li> <li>— 9.10-28, 모스크바</li> <li>○ 모스크바 방송, 중국의 韓國戰 參戰關聯 “크리스나야 즈베즈다” 紙 게재내용 보도</li> <li>— 中共軍의 韓國戰 參戰은 50.10.2일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東·西獨, 통일</li> <li>○ 東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폐쇄 (연합통신)</li> <li>— 統獨에 따라 東獨의 외교관계 소멸</li>   <li>○ 全 독일의회 개원</li> <li>— 전 동독장관 5인, 무임소 장관으로 입각선서</li> <li>○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파드왕과 회담 (AFP통신)</li> <li>○ 필리핀 반란군, 민다나오에 독립을 선포</li> </ul>

日字	北 韓	韓 國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軍停委』북측 수석위원 최의웅 소장, 유엔군측 수석위원에게 항의통지문 전달</li> <li>—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의 “도발행위”시정 요구</li> <li>○ 김일성, 미국 사회노동당 대표단 (단장: 전국비서 제크 반지) 접견 및 오찬</li> <li>○ 중앙방송, 韓-蘇 수교를 “달라로 사고파는 외교관계”라고 비난 보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고위급회담 제2차 실무대표 접촉 진행</li> <li>— 林東源 외교안보연구원장 崔守鎭 북한외교부 순회 대사 참석</li> <li>— 남측: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 강조</li> <li>— 북측: 유엔 『단일의석 공동가입안』 주장</li> </ul>

周 邊 4 強	其 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國은 지상군 담당, 소련은 공군을 담당키로 밀약</li> <li>○ 美國, 日-北韓 국교정상화교섭 관련 4개항의 요망서를 최근 日本에 전달 (日 요미우리신문)</li> <li>-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수락토록 日의 영향력 촉구, 對北 “보상” 不許 表明, 日 원조로 인한 北 군사력 강화 不願, 남북대화 촉진 위한 배려 요청 등</li> <li>○ 蘇 “노보에 브레미야” 紙, 북한 사회주의를 “세습적 군주제” 라고 비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全獨 의회, 새 선거법 채택</li> <li>- 前 東·西獨間의 선거협약 (9.29)을 대체</li> <li>- 12.2일 全獨 총선 대비</li> </ul>

日字	北 韓	韓 國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화축전대표단 (단장 : 인민 배우 엄길선), 뉴욕 남북영화제 참가차 평양출발</li> <li>○조선로동당중앙위,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宋平연회 마련</li> </ul>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일성,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宋平 접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崔浩中 외무장관, 日에 對北韓 수교에 앞선 5개항의 전제조건 촉구(朝鮮日報 회견)</li> </ul>
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다가스칼 대통령 디디에 라찌라카, “로동당 창건 45돌” 경축행사 참가차 평양 도착</li> <li>○조선중앙통신사, 지난 45년 간의 경제성과 관련 보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6년 대비 '89 공업총생산액 554 배, 곡물생산 年 1,500 만t 육박, 전력 年 555 억kw/H, 강철 年 7 백만t, 시멘트 '89年 1,350 만t, 화학비료 年 560 만t 생산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민족통일음악회 관련 판문점 연락관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북인사 10.14-24 일 (11일)간 체류, 5회 공연, 정치성 행사에는 불참 등 합의</li> </ul> </li> <li>○남북통일축구 1 차대회 관련 판문점 연락관 접촉</li> <li>○盧泰愚 대통령, 가네마루신 前 日本 부총리 접견</li> <li>○정부, 국방부장관 및 보안사령관을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부 장관에 李鍾九, 보안사령관에 具昌會</li> </ul> </li> </ul>

周 邊 4 强	其 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美國,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號 발사</li> <li>○日가이후 총리, 사우디아라비아 파드 국왕과 회담 (AP 통신)</li>   <li>○日 가이후 총리, 오만 카카부스 빈 사이드 국왕과 회담 (AP 통신)</li> <li>○제 11 회 北京 아시안게임 폐막</li> <li>○蘇 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 소집 (타스통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리핀 정부군, 민다나오 반란군 진압 (AP 통신)</li> <li>—지도자 알렉산더 노블 대령은 정부측에 투항</li>   <li>○대만 야당 民進黨, 당대회 통해 “중국 본토포기” 촉구 결의안 채택</li> <li>○이스라엘 경찰,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발포 (로이토통신)</li> <li>○아랍권 국가들, 팔레스타인인 학살관련 對 이스라엘 보복 경고 (AFP 통신)</li> <li>○사회주의 인터내셔널 회의, 뉴욕에서 개최 (AP 통신)</li> <li>—세계 91 개 사회주의 정당대표 300 여명 참석</li> </ul>

日字	北 韓	韓 國
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日 社會黨 대표단 (단장 : 도이 다카코 위원장), “로동당 창건 45돌” 경축행사 참석차 평양도착</li> <li>○김일성, 日 社會黨 대표단 접견</li> <li>○“로동당 창건 45돌” 관련 각종 행사 진행</li> <li>○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책임 연락관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측 : 대표단 및 수행원 등 총 90명 명단 전달</li> </ul> </li> <li>○김일성, 日 社會黨 도이 다카코 위원장과 금수산 의사당에서 회담 (연합통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통일축구대회 참가한 국선수단 일행, 평양도착</li> </ul>
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日 自民黨 대표단 (단장 : 간사장 오자와 이찌로), “로동당 창건 45돌” 경축행사 참석차 평양도착</li> <li>○김일성, 日 自民黨 대표단 접견 (日 교포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속한 국교정상화 위한 노력 요청</li> </ul> </li> <li>○“로동당 창건 45돌” 관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李會澤 前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평양에서 父親 상봉</li> <li>○제 1회 남북영화제, 뉴욕에서 개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한 감독·작가·배우 등 대표 각 9명, 작품 각 7편 출품</li> <li>— 10.14일까지 진행</li> </ul> </li> <li>○안기부, 남한사회주의 노동</li> </ul>

周 邊 4 強	其 他
<p>○中國 李鵬 총리, 신중한 내용의 5개년 經濟計劃 大綱 발표 (중국 人民日報)</p> <p>— 종전의 과감한 개혁에서 후퇴</p> <p>○蘇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시장경제 전환 위한 5백일계획 11. 1 일부 도입을 승인</p> <p>○蘇 노보에 브레미야紙, 북한은 “스탈린이 세운 사회주의 국가”라고 주장</p> <p>— 김일성 정권의 정통성 부인</p> <p>○소련 세계경제 및 국제 관계연구소 軍縮室長, 南北 核미사일 동시 제거 제의 (조선일보)</p> <p>—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한반도 군비통제” 세미나</p>	<p>○이라크 후세인 대통령, 팔레스타인인 학살 관련 對 이스라엘 미사일공격 위협 (對이스라엘 메시지)</p> <p>— “이스라엘은 아랍땅을 떠나라”고 경고</p> <p>○사회주의 인터내셔널, 蘇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공화국 사회당들에 정회원자격 부여 (AP 통신)</p>

日字	北 韓	韓 國
10.10	<p>각종행사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 “로동당 창건 45 돌” 관련 금수산의사당에서 연회 개최 (중앙방송)</li> <li>- 연설에서 당의 영도적 역할 강화 강조</li> </ul>	<p>자 동맹(社勞盟) 관련자 2명 구속</p>
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日 어선 후지산마루號 선장 및 기관장 석방</li> <li>○ 김일성,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宋平의 숙소를 방문</li> <li>○ 범민족통일음악회 준비위원장 尹伊桑 일행, 평양도착</li> <li>○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군축을 위한 노조일꾼들의 국제적 상봉”, 인민문화 궁전에서 진행 (평양방송)</li> <li>- 가나, 남아프리카, 일본 등 18개국 대표단 참석</li> <li>- 전세계 노동자·노조, 제 12차 세계직맹대회, 제 45차 유엔총회앞 서한 채택</li> <li>○ 남북통일축구 1차전, 평양에서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1회 남북영화제 참가 양측단장, 南北영화교류 확대 원칙에 합의 (공동기자회견)</li> <li>- 남북영화제 서울·평양 교환개최, 양측의 영화제에 상대측 초청 등</li> </ul>

·周 邊 4 强	其 他
<p>○日 自民黨 幹事장 오자와 · 社會黨                      위원장 도이 다카코, 후지산마루號                      선원 석방  관련 對北 謝意文 전달</p>	

日字	北 韓	韓 國
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1 : 북한 2</li> <li>- 여자경기는 취소</li> </ul>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캄보디아 주석 시아누크, 평양도착</li> <li>○ 한국축구선수단, 인민대학습당 참관 및 대집단 체조 관람</li> <li>○ 『조평통』 국제연락위, 고려연방제안 지지 월간 즈음 호소문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 일, 파리</li> </ul> </li> <li>○ 제 9 차 윤이상음악회, 봉화에 술극장에서 개막(중앙방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책임연락관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대표단의 평양체류 일정 확정</li> </ul> </li> <li>○ 鄭義溶 외무부대변인, 제 45 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안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발표</li> <li>○ 民自黨, 黨職 개편 단행</li> </ul>
1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월민주항쟁” 11 돌 기념 평양시보고회, 중앙사로청회관에서 진행(평양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9 년의 부산·마산사태 관련</li> </ul> </li> <li>○ 북한, 최근 금강산에 김정일 칭송문구 刻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盧泰愚대통령,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에서 “국민과의 대화” 통해 발표</li> </ul> </li> <li>○ 제 1 회 뉴욕남북한영화제 참석 양측대표단장, 서울 평양을 교환 방문기로 합의(연합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 월중순 평양, 12 월 중 서울</li> </ul> </li> <li>○ 鄭東星 체육부장관·김유순</li> </ul>

周 邊 4 强	其 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美 下院, '91 회계년도 군사비 지출법안 10.12 일 승인 — 총규모 2,680 억달러</li> <li>○中國, 福建省에 새 軍區 창설 (사우스 차이나모닝 포스트紙)</li> <li>○蘇 고르바초프 대통령, 레닌동상, 전쟁기념물·기타 국가적 상징물 파괴를 금지하는 포고령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 국회를 해산 — 11.29 일 총선 실시</li> <li>○필리핀 아키노 대통령, 민다나오섬 자치정부에 국방·외교를 제외한 모든 행정권 부여 (로이터통신)</li> <li>○獨·蘇, 蘇軍 철수협정조인 — 前 동독지역 주둔 소련군을 '94 년말까지 철수</li> <li>○유엔 安保理, 이스라엘 규탄결의안 10.12 일 채택 — 이스라엘 경찰의 팔레스타인인 19명 학살 관련</li> </ul>

日字	北 韓	韓 國
		<p>북한올림픽위원장, 向後 주 요국제대회에 南北 단일팀으 로 참가기로 合意 (연합통신)</p>
10.14	<p>○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예정 서울전통음악연주단, 판문점 통해 入北 —黃秉冀 교수 등 음악가 14명, 보도진 3명</p>	<p>○제 1 회 뉴욕 남북영화제 폐막</p>
10.15	<p>○訪北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동평양대극장·학생소년 궁 전 방문후 尹伊桑음악회 관 람 ○제 147 차 재일동포 단기 조 국방문단, 삼지연號 편으로 원산항 도착</p>	
10.16	<p>○제 2 차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단, 판문점 통해 평양 도착 ○延亨默 총리, 제 2 차 남북고 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위해 인민문화궁전 대연회장에서 연회 개최</p>	<p>○盧泰愚대통령, 蘇 고르바초 프 대통령의 친서 접수 (청와대 대변인 발표) —韓·蘇 수교에 만족, 양국 정상회담 실현희망 등 내 용 ○IPU총회 참석 남북한 대표</p>

周 邊 4 強	其 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下院, 駐日 美軍 주둔비 분담 요구 수정안 가결</li> <li>○ 美 무역대표부, GATT에 우루과이라운드에 관한 미국측 최종 농업협상안 제출</li> <li>○ 日 自民黨, “유엔평화협력법안” 정식 승인</li> <li>○ 日 外務省, 향후 對北韓 외교관계 적극전개 방침 공식표명 (外交青書)</li> <li>○ 소련, 시장경제 전환 위한 4 단계 개혁안 발표(한국일보)</li> <li>○ 蘇 러시아공화국 엘친 대통령, 고르바초프 대통령에 聯政 제의 (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스라엘 외무장관, 팔레스타인 .人 학살 관련 유엔진상 조사단 入國 거부 방침 발표</li> <li>○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 아라파트 PLO의장과 바그다드에서 회담(이라크 INA통신)</li> <li>○ 노벨상 위원회, 蘇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90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 발표</li> <li>○ 유엔총회, 캄보디아문제 결의안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安保理의 캄보디아 평화 계획 ('90. 8월) 추진 촉구</li> </ul> </li> <li>○ 필리핀 정부, 일부의원들의 對北韓 수교제의를 거부 (AFP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원 외교위 청문회, 북한의 국제테러리즘 지원 정책 고수 이유</li> </ul> </li> </ul>

日字	北 韓	韓 國
10.16	一延亨默총리 :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등 언급 一姜英勳총리 : 대화 · 교류 통한 신뢰회복 강조 ○『北赤』이성호 위원장 대리,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을 11.15일 판문점으로 제의 (對南 電通文)	단, 남북한 국회의원 상호교 환 방문을 조속히 추진키로 합의(연합통신) 一우루과이 푼타델 에스테 一朴定洙 한국측단장, 이몽호 북한측 단장에게 北韓 IPU대표단의 年內 서울방 문 요청
10.17	○제 2차 남북고위급회담 첫날 회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一姜英勳총리 : 상호 실제 인 정 강조, 對南革命路線 포 기 등 3개항 당면과제 제 시 一延亨默총리 : 일방의 유엔 가입 불가, 불가침선언 초 안 제시 ○제 2차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林東源 · 북측 安炳洙 대변인, 첫날 회담결과 관련 기자회견 一남측 : 북측의 前進의자세 를 긍정 평가 一북측 : 교류 · 군사대결문제 동시병행, 불가침선언 채택	



日字	北 韓	韓 國
10.17	<p>제의 등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동당대표단 (단장 : 김용순 비서), 프랑스 向發</li> <li>—파리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의한 통일된 하나의 조선을 위한 세계 대회” 참석 목적</li> <li>○범민족통일음악회 준비위 제 1 차회의, 고려호텔에서 진행</li> <li>○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李朝實錄 번역본 360 권 출판 (중앙방송)</li> </ul>	
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 2 차 남북고위급회담 둘째 날 회의, 인민문화궁전에서 비공개로 진행</li> <li>—제 3 차 남북고위급회담을 12.11 ~ 14, 서울로 잠정 합의</li> <li>○제 2 차 남북고위급회담 취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통일축구 2 차대회 관련 판문점 연락관 접촉</li> <li>—선수단·임원·기자단 등 인원 78명 (단장 : 김유순 북한체육위원장) 확정</li> </ul>

周 邊 4 强	其 他
<p>○美 下院, 對中國 최혜국 대우 1 년연장 거부 결정</p> <p>○蘇 우크라이나공화국, 연방정부로 부터의 獨立 촉진결의안 채택</p>	<p>○ IPU 西歐 12국대표단, '91년 제 85차 IPU 총회 평양 개최시 관문점 통해 入北키로 결의</p>

日字	北 韓	韓 國
10.18	<p>남측기자단, 로동신문사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金日成,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접견</li> <li>○楊亨燮 최고인민회의 의장, 제 2 차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위해 목란관에서 연회 개최</li> <li>○범민족통일음악회, 2.8 문화회관에서 개막 — 10.23 일까지 계속</li> <li>○북한, '91년 제 85 차 IPU 총회 평양개최 신청</li> </ul>	
1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 서울 전통음악연주단, 2.8 문화회관에서 첫 공연</li> <li>○姜錫柱 외교부 제 1 부부장, “한국의 일방적 유엔가입 신청시 중국이 거부” 언급 (기자회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 2 차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판문점 통해 귀환</li> <li>○姜英勳 총리, 남북간 불가침 선언에 앞서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고 언급 (KBS TV 회견)</li> </ul>

周 邊 4 強	其 他
<p>○美 베이커 국무장관, 北韓과 이라크의 核개발이 새로운 위험요인이라고 지적 (아메리칸커미티 연설)</p>	<p>○사우디 아라비아 석유장관, 韓國에 대해 原油의 안정 공급을 약속 (李焜逸 동자부 장관 앞 서한)</p>

日字	北 韓	韓 國
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민족통일음악회, 평양 각 극장에서 진행 (중앙방송)</li> <li>— 청년중앙회관, 평양대극장, 봉화예술극장, 모란봉극장, 만수대예술극장 등</li> <li>○ 평양市, 가이아나 조지타운市와 친선도시 설정 (중앙방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文益煥목사 석방</li> <li>○ 韓·中, 서울·北京에 무역대표부를 교환 설치키로 합의 (대한무역진흥공사 발표)</li> <li>— 영사업무, 정부간 연락업무도 취급</li> <li>○ 북한군 중사 1명, 화천북방 휴전선 넘어 귀순 (국방부 발표)</li> </ul>
1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에 의한 통일된 하나의 조선을 위한 세계대회”, 파리에서 개최</li> <li>— 10.22일까지 진행</li> <li>— 로동당 대표단 (단장: 김용순 비서)을 비롯, 세계 79개국 110개 단체대표 및 인사들 참석</li> <li>○ 조·중 친선주간 개막식,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 (중앙방송)</li> <li>○ “민족음악과 조국통일” 토론회, 인민문화궁전에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통일축구 북측대표단, 판문점 통해 서울 도착</li> <li>— 김유순 북한 체육위원장 인솔, 임원 18명·남녀 선수 38명·기자 22명 등</li> </ul>

周 邊 4 強	其 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國, 일본에 대해 自衛隊 海外 派兵 中止를 촉구(외교부 성명)</li> <li>○ 蘇 포포프 모스크바市場, 日本에 대해 북방 4개도서 經濟特區化·共同管理 제의(日 마이니찌신문 회견)</li>   <li>○ 日 海上自衛隊, 대만 선박 2척의 釣魚臺 군도 접근을 저지(로이터 통신)</li> <li>○ 蘇 최대 야당연합체 “민주 러시아운동” 발족(AP 통신)</li> <li>— 30여개의 단체들이 결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외무장관, 베트남-中國間 關係正常化 과정 합의 발표(日 교토통신 회견)</li> </ul>

日字	北 韓	韓 國
10.22	<p>진행 (중앙방송)</p> <p>— 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 남·북·해외동포 음악 예술인 등 참가</p> <p>○ 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 남 ·북·해외동포 연주단, 평 양 봉화예술극장에서 합동 공연</p> <p>○ 中共軍 6.25 참전 40 돌 기 념 각종 행사 진행</p> <p>— 各道 및 市集會, 各種 宴會 등</p> <p>○ 서울전통음악연주단 일행, 만수대 창작사 참관</p> <p>○ 북한·쿠바, “ '91 년도 상품 호상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 조인</p> <p>— 10.19, 아바나</p>	<p>○ 남북통일축구 여자선수단, 잠실보조경기장에서 남북 합동훈련 실시</p>
10.23	<p>○ 범민족통일음악회, 2.8 문 화회관에서 폐막</p> <p>○ 북한, 압록강 다리를 “ 조 중천선의 다리 ” 로 명명 (중앙방송)</p>	<p>○ 남북통일축구 경기, 잠실 운동장에서 진행</p> <p>— 한국 1 : 북한 0</p> <p>○ 남북통일축구 북측 김종성 선수, 서울에서 고모 상봉</p>

周 邊 4 强	其 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蘇 리슈코프 총리, '91년까지 各 共和國에 硬貨처분권 이양 방침 언급 (蘇 인테르팍스 紙 회견)</li> <li>○ 蘇 모이세예프 참모총장, 95년까지 군수공장의 민수품 생산비율을 60% 이상으로 증대 하겠다고 언급 (타스통신)</li> <li>○ 日 가이후총리, 노태우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양국간 협력 강화 다짐</li> <li>○ 일본 각지에서 自衛隊 페르시아灣 파병 반대시위 (UPI 통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 행정원장 釣魚臺군도로 부터 日海上自衛隊의 즉각적인 철수요구 성명 발표</li> <li>○ EC, 中國·베트남·이란에 대한 경제·외교 제재조치를 해제키로 합의 (로이터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룩셈부르크, EC 외무장관 회의</li> </ul> </li> <li>○ 이라크, 휘발유 배급제 시작 (로이터 통신)</li> <li>○ 이라크 의회, 프랑스인 인질 330명 전원 석방승인 (로이터 통신)</li> </ul>

日字	北 韓	韓 國
1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영화축전 대표단, 뉴욕 남북영화제 참가후 귀환</li> <li>○ 북한-가나 간 '90-'92년도 문화교류에 관한 계획서 조인</li> <li>○ 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 서울전통음악연주단, 판문점 통해 귀환</li> <li>○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 (단장: 당 정치국원 겸 국무위원 이철영), 평양 도착)</li> <li>○ 中共軍 6.25 참전 4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2.8 문화회관에서 진행</li> <li>○ 중앙방송, 남북통일축구 북측기자들의 취재활동을 남측 "안내인"들이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 보도</li> <li>○ 김일성, 범민족통일음악회 준비위원장 尹伊燾 일행 접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鄭東星체육부장관, 남북통일축구 북측선수단 위해 워싱턴 키힐호텔에서 만찬 개최</li> </ul>

周 邊 4 強	其 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 사카모토 관방상, 釣魚臺군도는 日本領土라고 천명 (로이터 통신)</li>   <li>○ 日 사회당 다나베 부위원장, 일-북한이 '91년중 수교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도쿄 總團聯合회관 강연)</li>   <li>○ 蘇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나훗카港에 自由經濟地區를 설치키로 결정 (타스통신)</li>   <li>○ 蘇 타스통신, 自衛隊의 海外派兵은 日의 정치군사적 국제무대 진출이라고 논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라크, 14명의 미국인 인질 석방 (AP 통신)</li>   <li>○ 유엔안보리, 이스라엘에 유엔진상조사단의 입국거부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li>   <li>○ 미얀마 군사정부,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확대 (UPI 통신)</li> </ul>

日字	北 韓	韓 國
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방송, 蘇 이즈베스차紙 보도 소련인들의 生活難을 지적 보도</li> <li>○ 中共軍 6.25 참전 40 돌 기념 각종행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 금수산의사당에서 연회 개최</li> </ul> </li> <li>○ 북한, 백암-유평간 電鐵化 공사 시작(평양방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鄭東星 체육부장관·김유순 남북통일축구 북측단장, 남북체육회담을 재개키로 합의(합동발표문)</li> <li>○ 남북통일축구 북측선수단, 판문점 통해 귀환</li> <li>○ 미주 민족문화예술협의회, 南北文人 공동작품집 “통일예술” 창간호 발행</li> <li>○ 외무부, 日에 自衛隊의 페르시아灣 파병에 대한 우려 입장 전달(한국일보)</li> <li>○ 油公, 蘇聯產 원유를 최초로 수입(조선일보)</li> </ul>
1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7 차 국제사격경기대회, 평양에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21-26, 北韓·中國·폴란드·불가리아 등 참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체코 외무장관, 兩國間 항공협정과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서명</li> </ul>

周 邊 4 強	其 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체니 국방장관, 페르시아灣에 美軍 10 만 증파 예정 발표 ( AP 통신 )</li> <li>○ 中國 人民日報, 中國-北韓間 우호는 曆齒와 같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도</li> <li>○ 소련 카자흐 共和國 최고회의, 공화국 주권을 선언</li>   <li>○ 中國 楊尙昆 주석, 일본이 유엔 평화협력법안을 통과 시키면 中國民들 “ 격렬 반응 ” 경고 ( 연합통신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키스탄 總選 (10.24) 에서 회교민주동맹 ( IDA ) 압승 ( 選管委 발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217 석 중 105 석 차지</li> <li>- 부토의 파키스탄 민주동맹 ( PDA ) 은 45 석 차지</li> </ul> </li> <li>○ 체코의회, 企業私有化法案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10 만개의 소매점 및 기업들의 민영화가 골자</li> </ul> </li> </ul>

日字	北 韓	韓 國
1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가입문제 협의위한 대표접촉을 계속키로 원칙적 합의</li> </ul> </li> <li>○ 평양 광복거리에 북한·중국 합영식당 “청춘관” 개관</li> <li>○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장 이철영, 금수산 의사당에서 연회 개최 (중앙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 이종욱, 연형묵 등 참석</li> </ul> </li> <li>○ 駐中 북한대사 朱昌俊, 韓·中 수교로 확대되지 않는 한 민간무역은 반대 않는다고 언급 (한국일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페르시아灣 지역에 정부조사단 파견 (한국일보)</li> <li>— 多國籍軍, 周邊國 등 지원문제 협의</li> </ul>

周 邊 4 强	其 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蘇 고르바초프 대통령, 스페인 공식방문</li> <li>○ 蘇 고르바초프 대통령, 外國人의 기업 100%소유 인정 포고령 발표                - 루블貨 환율절하, 外國人 과실송금 인정 등 포함</li> <li>○ 中國 외교부, 日에 대해 釣魚臺 군도 주변에서의 모든 행동을 중단토록 요구(로이터 통신)                - 北京 駐在 日 대사 통해 전달</li> <li>○ 蘇 프라우다紙, 한반도 통일위해 교차승인이 필요하다고 10. 26일 보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르샤바기구, 각국별 탱크·砲 감축규모 합의                - 소련 150대, 기타 국가 총 490대 감축                - 나토와의 협정에 따른 조치</li> </ul>

日字	北 韓	韓 國
1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중국 국가체육위원회 '91년도 체육교류의정서 조인</li> </ul>	
1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朴鎔道 공업진흥청장, 북한 측에 남북한 공업규격교류 촉구 (연합통신)</li> <li>— 北京 국제전기표준회의 (10.20 ~ 27) 참석시</li> </ul>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韓, 一部改閣 실시</li> <li>— 洪時學을 정무원 부총리에, 金元鎭을 농업위원장에 임명</li> <li>○ 북한, 在蘇 우크라이나공화국 북한유학생 전원 소환 (日 교또통신)</li> <li>○ 북한, 김일성·김정일花 다량 번식 선전 (중앙방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 진행</li> <li>— 유엔가입문제 논의위한 대 표접촉을 11. 9일 판문점에서 비공개 개최기로 합의</li> <li>○ 정부, 駐蘇 한국대사관 개설</li> <li>— 초대 대사에 孔魯明 駐蘇 영사처장 임명</li> </ul>

周 邊 4 強	其 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民主黨 의원 81 명, 이라크 에 대한 군사공격 반대 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內 反戰 감정 반영</li> </ul> </li>   <li>○ 日 경찰, 표류 북한 간첩선 1 척 수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사카 동쪽 소도시 미하마 부근에서 발견</li> </ul> </li>   <li>○ 蘇 · 프랑스 頂上, 兩國間 협력협정 조인</li>   <li>○ 美 · 北韓, 北京에서 13 次 접촉 개최 (연합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駐 北京 兩側 참사관급 참석</li> <li>— 유해송환 문제 등 양국 관계 전반 협의</li> </ul> </li>   <li>○ 美 국무부 솔로몬 東亞 · 太 담당 차관보, 美 · 北韓 관계개선은 한반도 통일에 유익하다고 언급 (캘리포니아大 연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C 정상 (영국제외), 단일 통화채택을 위한 원칙적인 방향설정에 합의 (공동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마 EC 특별정상회담 (10.27-28)</li> </ul> </li>   <li>○ 臺灣 江丙坤 경제부차관, 무역 대표부 교환설치 등 對蘇 관계 개선 방침 발표</li>   <li>○ 유엔 安保理, 쿠웨이트 침공 책임을 추궁하는 對이라크 결의안 채택</li>   <li>○ 이라크 억류 프랑스 인질 약 300 명, 파리 도착</li>   <li>○ 英國 — 프랑스間 해저터널 공사 試掘孔 관통 (로이터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1.26 일 완공 예정</li> </ul> </li> </ul>

日字	北 韓	韓 國
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 (단장 : 당 정치국원 겸 국무위원 이철영), 평양 출발</li> <li>○朴吉淵 유엔대표부 대사, “한국유엔單獨加入試圖時 남북 대화 결렬” 언급 (기자회견)</li> <li>○북한, 매년 7.7일을 “탄부절”로 제정</li> <li>○북한, 일부 대학들의 이름을 개칭 —평양시범대→김철주사범대 등 60개 대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安企部,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핵심간부 40명 구속 송치 발표</li> <li>○범민족대회추진본부, 남·북·해외동포 대표회담 제의 (기자회견) — 11.12일 판문점, 3자 대표 6명 참석</li> <li>○金泳三, 民自黨 대표최고위원 內閣制 개헌 반대 선언 (기자회견)</li> </ul>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화국 선수권대회 폐막 (중앙방송) — 10.1일 중앙·지방의 남녀 3,000여 선수들 참가</li> <li>○북한, 한국 전투함 1척이 북한 서해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 (평양방송)</li> <li>○북한-체코간 무역협정 조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李鍾九 국방부장관, 次世代 戰鬥機사업 (KFP) 전면 재검토 방침 발표 (기자 간담회)</li> </ul>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韓, 조건부로 核査찰에 동의 (IAEA 사무국장 日 니혼게이지이신문 회견) —미국의 對 북한 核 不使用</li> </ul>	

周 邊 4 強	其 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蘇, 對北韓 핵관련 물품 선적중단 및 채래무기 공급 축소(LA 타임즈紙)</li> <li>○中國 李鵬 총리, 소련식의 급속한 경제개혁정책 배제 언급(AFP 통신)</li> <li>○蘇 고르바초프 대통령, '93년 아시아國 정상회담 제안</li>   <li>○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은 페르시아灣 사태로 220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주레 브리핑)</li> <li>○蘇 몰다비아공화국 가가우즈族 의회, 독자적 정부 및 총리 선출(蘇인테르팍스紙)</li> <li>○蘇 그루지아공화국 선거(10.28)에서 공산당 패배(타스통신)</li> <li>○日 외무성, 對中國 개발 차관 재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안문사태 이후 동결</li> <li>-총 365억엔 규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바니아, 소수 국민을 대상으로 自營業을 허가(AFP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백여명 국민에게 정육점, 빵가게, 구두수선가게 등 허용</li> </ul> </li> <li>○독일·폴란드, 양국간 국경조약 초안 합의(로이터 통신)</li>   <li>○이스라엘 공군기, 팔레스타인 게릴라 기지 공습(AFP 통신)</li> <li>○臺灣 각료회의, 對中관계법 초안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에 영사기능 수행기구 설립, 간접투자·교역 등 규정</li> </ul> </li>   <li>○페루 꾸스꼬市, 북한 김일성을 명예시민으로 10.21일 추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서 및 시장지휘봉을 북한측에 전달</li> </ul> </li> </ul>

日字	北 韓	韓 國
11.2	<p>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社民黨』 창립 45 돌 기념 중앙보고회, 당 중앙위 회의실에서 진행 (중앙방송)</li> <li>— 이계백 (『사민당』 위원장) 김중린 (당비서), 염태준 (『조건』 의장) 등 참석</li> <li>○ 北韓·蘇聯, 대외경제거래에서 “새로운 방법” 으로의 이행에 관한 정부가 현정 조인</li> <li>— 모스크바, 김달현 (부총리) ·콘스탄틴 까뚜셰브 (소 대외경제 연락상) 서명</li> </ul>	

周 邊 4 强	其 他
<p>○蘇 몰다비아공화국에서 경찰-시민간 유혈 충돌 발생 (로이터 통신)</p> <p>-러시아系 주민 거주지역서 발생 60명 사상</p>	



# 統一教育專門委員協議會動靜

- 統一教育專門委員協議會 象徵叫三 制定(案)
- 專門委員 活動狀況
- 統一研修院新築 廳舍 移轉案內

「統一教育專門委員協議會動靜」欄에는 各 市·道協議會 및 專門委員의 活動狀況을 掲載하고 있습니다.

本欄을 利用하시고자 할때에는 內容을 要約하여 매일 10 日 이전에 관리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호에는 「서울시협의회」 金營委員이 創作한 「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의 象徴인 마크 및 統一教育專門委員 歌와 玄鶴淳 副議長님의 「공산권 국가 현지 연수보고서」 內容을 掲載하여 드립니다.

統一教育專門委員協議會

**象徴 마크制定 (案)**

“統一教育專門委員協議會”에서는 協議會의 象徴마크 (보조마크 및 로고체포함)와 統一教育專門委員歌를 制定코자 합니다.

그동안 應募作品中 協議會에서 檢討한 서울시協議會 金營 委員의 創作 作品을 專門委員님의 高見을 收斂코져 掲載하오니 '90. 12.30 까지 많은 協調 있으시기 바랍니다.

1990. 11. 20

統一教育專門委員協議會 議長 朴 在 根

# 마 크



## ○ 目 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統一教育專門委員의 위상을 정립시키고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국민정신 계도를 충실히 실시함으로서 統一教育專門委員의 기상을 드높이는데 있음.

## ○ 마크(圖案) 說明

- 한글의 “통일”이라는 첫字를 갖고 (“ㅌ”, “ㅇ”) 全體圖案의 構圖를 담고 있음.
- 한글의 “통字” ㅌ의 3方向은 우리의 統一原則인 民主, 自主, 平和를 담고 있음.
- 專門委員의 역할이 統一의 門을 여는 열쇠(Key)의 모양을 하고 있음.
- Key의 형태에서 南쪽을 뜻하는 원형고리는 統一의 主導가 우리의 힘과 뜻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統一은, 統一教育專門委員의 선봉대 역할에 First 먼저 앞서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統一은, 우리에게 의해 만사 “OK”라는 긍정적인 오른손의 모습을 담고 있음.
- 마-크全體가 한반도의 모양을 담고 있어, 전체 우리의 統一된 영토를 나타내고 있음.
- 圖案의 형태가 現代의 감각디자인으로 시대성에 따르도록 作圖되었음.

○ 色圖상, 說明

- 흰색은 한국 5천년 歷史의 백의민속 기상을 담고있으며, 平和와 질서의 상징을 담고 있음.
- 진한, 하늘색은 統一을 위한 한국의 미래의 의지를 표현하며 (성공, 예약, 젊음, 창의, 발전) 푸른 統一希望精神을 담고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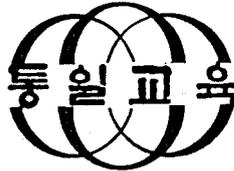
로 고 체

#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

○ 로고圖體의 說明

- 統一教育專門委員協議會 “로고체”는 세종대왕께서 손수 집현전에서 창제하신 “월인천강지곡”체로 도입하여 한민족의 숭고한 뜻을 새기고 있으며, 마크의 현대적 美와 로고의 고대美를 가미시켜 統一韓國을 이룩하는 위대한 의지를 담고 있음.
- 글씨의 색채는 도안색과 같이 하여 統一의 의미를 갖게했음.
- 로고체의 글자수는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 11字임.

## 보 조 마 크



### ○ 목 적

이 상징의 의미는, 각종행사 (초청, 세미나, 심포지엄, 단합대회) 등에서 사용하는 인식선명에 가일층 상징되게 하여, 전문위원 협의회가 웅대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뜻을 새기며, 방송 기타 홍보시 매우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 보조마크 도안 설명

- 각종 출판문 내부에 “인식” 주요부분 서두에 사용
  - 꺾기대회시 국민들이 보아도 쉽게 식별이 가는 전문위원 기관 상징 뜻을 갖고 있음.
  - 색깔은 본 마크의 색도와 같게 진한 하늘색 사용
  -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촌,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치를 담고 있음.
  - 3개의 원형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민주, 자주, 평화의 뜻을 나타냄.(통일지표)
- 굵은선과 가는선의 연결은 국민을 나타내며 서로 서로 고리에 연결 (HAND IN HAND) 되어 통일로 앞장서서 나가자는 뜻을 담고 있음.(협력)
- 가운데 통일교육전문위원의 상징인 로고체 “통일교육”은 전문위원의 역할이 통일의 근원적 활동이 전개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통일주도의 선봉)
- 우주의 원 3개는 남·북한, 해외동포, 즉 한민족을 나타냄.

# 統一教育專門委員歌 (가칭)

김 영 작사  
조 명 자 작곡  
김 희 현 편곡

힘차게

삼각의 정기 어린이 통일요람에  
한강의 기적 살려 통일로 가는 길

민족의 부름 받고 우리모두 모였-다  
화합된 민족의 혼 동-방의 불꽃 이다

통일선봉에 선 불타는 열정들아  
북녘 동포들아 모두 다 일어나라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Korean song. It consists of three systems of music, each with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key signature is one flat (B-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lyrics are in Korean and express a strong sense of national unity and independence.

**System 1:**

*f*  
호국정신 받들어 민주통일이룩하자  
동맹정신 되살려 통일길로나가자

**System 2:**

한민족 공동체란 우리 나 갈 길

**System 3:**

*f*  
민족자존 정권으로 통일번영이휘가세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steady bass line and chords that support the vocal melody. The score ends with several empty staves.

● 統一教育專門委員歌 歌詞 및 作曲說明

- 1) 「제 1 절」 大韓民國 首都서울의 主山인 三角山(북한산)을 상징하여 祖上들이 統一國家時代의 태평성대를 누렸던 漢陽(서울)을 되새기게 하였으며, 現在는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이 북한산정기에서 統一 翁지의 뜻을 갖고 역사(役事)를 始作한다는 意味를 담고 있음.
- 2) 統一의 意志는 우리 한민족의 뜻이며 모두가 염원하는 꿈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우리(委員)들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忠精을 맹세한다는 뜻을 담고 있음.
- 3) 大韓民國을 지키기 위해 초개와 같이 몸을 받쳤던 선열들의 장엄한 뜻을 살려, 굳건히 나라를 지키고 統一繁榮의 기틀을 이룩한다는 우리(委員)들의 和合된 信念의 뜻을 담고 있음.
- 4) 「후렴」은 우리나라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인 자주, 민주 평화의 3원칙의 基礎를 두고, 민족자강精神으로 기필코 統一을 성취한다는 統一哲學의 뜻을 담고 있음.
- 5) 「제 2 절」 한반도를 支配했던 先祖들이 漢江(명당수)를 매우 중요시 하였던 歷史的인(나라의 젖줄) 사실을 나타내게 하였으며
- 6) 漢江의 기적으로 위대한 국력바탕 위에 '88서울올림픽을 성공시켰으며, 현재 북녘땅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을 統一 대열로 나오도록 하며, 먼옛날 한민족의 우수성을 만방에 떨쳤던 東夷 민족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 統一로 연결된다는 뜻을 담고 있음.

- 7) 가사는 金營委員이 하였으며 作詞감수는 서울대학교 박동규 교수가 하였음.
- 8) 作曲은 힘찬 行進曲의 “F” 장조로 누구나 씩씩하게 따라 부르기 쉽게 곡을 지었으며 곡의 뜻은(멜로디, 화음) 여명에서 나와 막, 동이트는 환희의 기쁨으로 太陽을 맞이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음.  
作曲은 趙明子, 편곡은 金達賢이 하였으며 作曲감수는 인천교육대학 박준교 교수가 하였음.

專門委員活動狀況

## 共產圈國家 現地 研修 報告書

報告者：玄 鶴 淳  
(統一教育專門委員中央協議會副議長)

旅行國：中華人民共和國

研修期間：'90年7月3日—7月11日(9日間)

社會輿論을 造成하는 指導層 人士들이 共產圈國家의 實相을 직접 體驗하여 自由民主體制의 價値와 長點을 확인하고, 이를 國民에게 傳播시키므로써 體制守護에 대한 國民的 共感帶를 形成함과 동시에, 北韓의 開放化를 促進하기 위한 迂廻弘報 活動을 目的으로 平和問題研究所가 실시한 '90年度 夏季共產圈國家 現地 研修計劃에 참가한 本人은 研修報告를 統一教育專門委員 여러분 들에게 다음과 같이 要約하여 드리는 바 입니다.

### 1. 中國의 一般的 概要

- 面積：9,597 천 *km<sup>2</sup>*
- 行政區域：22 개省, 5 개 自治區, 3 개 特別市
- 人口：11 億 1,191 萬名(公式人口統計임. 實際人口는 11 億 5 千萬名 내외로 推定됨)
- 人種：漢族外 55 개 小數民族이 있음.

- 氣 候 : 國土의 대부분이 溫帶 몬순圈에 속하지만, 南部의 海南省은 年平均 氣溫이 24℃의 亞熱帶 氣候인 반면 黑龍江省은 年平均 氣溫이 4℃의 冷帶 氣候에 속하는 등 南北으로 큰 差異를 보이고 있었음.

## 2. 中國의 最近 政治活動

'89年 4月 胡耀邦 前 總書記의 死亡을 契機로 學生 市民들의 民主化 要求 示威를 시작으로 '89年 6月 4日 天安門事態가 發生했으며, '89年 6月말 趙柴陽이 失脚하고 江澤民이 總書記로 就任하였으며, '89年 11月에 鄧小平이 모든 公職에서 물러나는 등 中國의 核心的 指導層이 交替되었을 뿐만 아니라 '90年들어 天安門事態 이후 계속되어온 戒嚴令을 解除하고 西方世界에 柔和政策을 보이고 있으나 對內的으로는 統制體制를 強化하고 있었음.

## 3. 中國의 經濟動向

'89年度의 中國經濟動向은 GNP 15,907億元, 財政歲入 2,919億元, 歲出 3,015億元, 商品小賣總額 8,101億元, 輸出 525億\$ 輸入 591億\$ 外換保有高 165億\$, 換率 1\$ : 4.7元水準이며 1人當 GNP는 밝히기를 忌避하는 대신 2000年에 가면 800\$ 정도에 이를것이라고 하는 說明을 들었음.

'89年度 우리나라와의 交易規模는 31億\$水準인데, 北韓과는 5.6億\$水準이었으며, 우리나라는 '86年度부터 中國의 經濟特區 등에 合作投資를 하고 있는데 初期에는 주로 大企業을 中心으로 家電製品 生産投資가 이루어졌으나 最近에는 縫製, 신발, 낚시대,

안경태 등 勞動集約의 輕工業 中心의 小規模 試驗的 投資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投資業體數는 60 여개가 넘고 있는 실정인데, 元貨의 不換性 문제로 投資回收과 果實送金에 어려움이 있고, 貿易協定과 投資保護協定 및 科學技術協定 등 經濟交流에 必須的인 安全裝置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가지 問題點이 있는 實情임.

#### 4. 中國人의 生活相

職場生活을 하는 中國人의 한달 平均 報酬는 160 ~ 180 元 水準이며 大學教授의 月給이 200 元 (韓貨 약 30,000 원) 정도로서 中國人 全體의 生活水準은 우리나라의 50 年代 말 내지 60 年代 초반 정도로 評價할 수 있음.

旅行의 自由는 있으나 住居移轉의 自由는 없는 制約속에서 살고 있었으며, 大衆交通手段은 自轉車를 主로 이용하고 있는데 自轉車 한 대의 값은 150 ~ 300 元 정도이고 工產品의 品質水準이 粗雜할 뿐만 아니라 生活必須品이 모자라 國營商店보다 自由市場이 活性化되는 現象마저 보였고, 대부분의 市民들이 게으르고 지저분한 環境속에서 典型的인 後進國 生活狀을 이어가고 있었음.

#### 5. 中國旅行에서 얻는 敎訓

中國의 大學教授 등 知識人들은 한국을 亞細亞地域에서 日本다음으로 發展한 先進國으로 認識하고 있었으며, 88 서울올림픽 이후 일반 中國人들도 親北韓의 性向에서 서서히 脫皮하여 韓國과

親交를 맺고 韓國을 배워야 中國이 發展할 수 있다는 認識을 갖고 있었음.

竣工後 570 年の 歷史를 자랑하는 柴金城을 비롯한 天安門과 萬里長城 및 이화원 등 훌륭한 建築文化를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亞細亞의 文化大國이었던 中國이 豊富한 地下資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날 後進國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共產黨 一黨獨裁體制下에 社會主義 強大國을 建設하겠다는 理念의 사슬을 풀지 못하고, 自律과 創意를 바탕으로 市場經濟體制를 發展시키는 資本主義 經濟體制를 追放시킨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음.

鄧小平의 執權이후 實用主義 政策을 推進하여 最近에 經濟成長이 多少 이루어지고 있으나 1949 年 10 月 1 日 共產政權 樹立以來 40 餘年 동안 國民을 不潔한 環境속에서 가난과 게으름이 만연한 貧困의 平等社會에 順應케 하여 온 오늘의 中國을 보면서, 共產主義政治體制는 國民을 欺瞞할 수 있지만 眞正한 國家發展의 政治體制는 될 수 없다는 것을 實感케 하였음.

그런데 中國도 世界의 政治潮流에 따라 앞으로 共產黨이 沒落하고 自由民主主義 政治體制가 樹立되어 經濟開發을 加速化 시킬 경우 30 ~ 40 年後에는 새로운 經濟大國으로 變貌할 가능성도 있는 나라라고 評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에 對備하여 長期的이고 戰略的인 次元에서 中國에 대한 接近方法이 必要하다고 생각되었음.

## 統一研修院 新築廳舍 移轉 案内

당 연수원이 '90.12. 1~12.5 기간중 신축청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통일교육전문위원 중앙협의회 사무실도 당원 신축청사內로 이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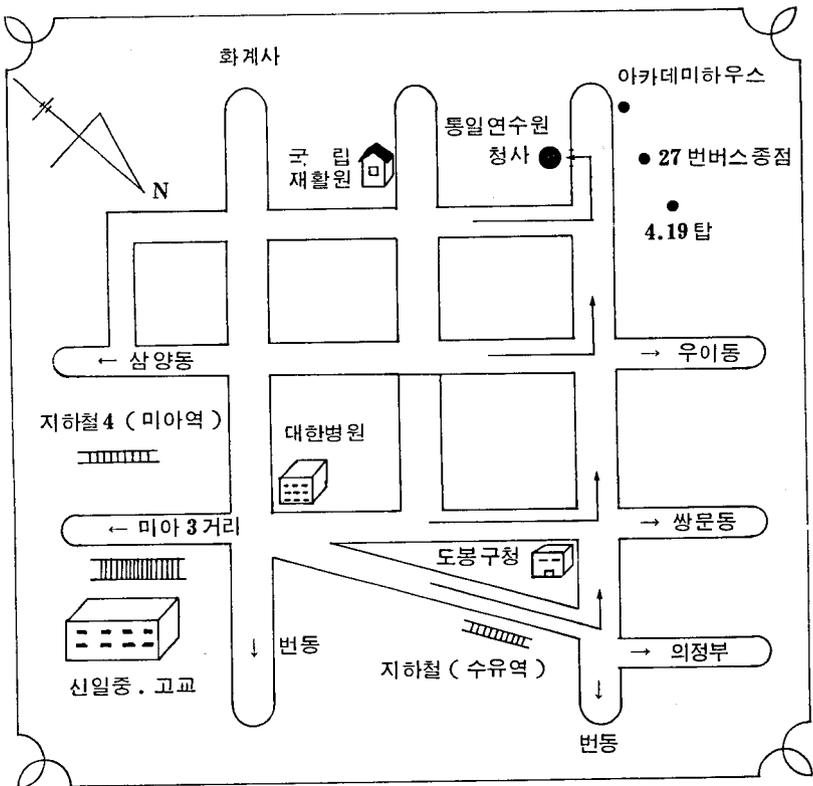
現在 '90하반기 계도실적을 제출하지 않으신 專門委員님께서 는 12.5 이전까지 現 청사로 도착할 수 있도록 계도실적을 조속히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그이후 도착분에 대하여는 신축청사(우편번호: 132-070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산 73-13 통일연수원 관리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연수원에서는 신축청사 준공식을 '91.1월末~2월初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으며 준공식 관련행사 및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新築廳舍 概要 ▶

- 대 지 : 16,898 坪
- 건 평 : 5,350 坪 (건물 6 동)
- 공사기간 : '88. 5 ~ '90.12.
- 소재지(주소) :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산 73-13

청사안내 약도



통일연수원 전화번호

• 안 내 : 901-7114  
• FAX : 937-0255

실과명		전화번호	실과명		전화번호		
원	장	(직)997-0548	교 수 부	교 학 과	과 장	901-7120	
		901-7100			기 획	901-7121	
부속실	901-7100	교 재			901-7123		
	귀빈실	(직)997-3973				901-7124	
901-7101		연 수		과 장	901-7150		
부속실	901-7101			연 수	901-7151		
교 수	교수부장	(직)997-0549		과	진 행	901-7102	901-7051
		901-7102				계 획	901-7152
	교	교				901-7131	901-7052
						901-7132	901-7153
			901-7133	901-7154			
			901-7134	901-7053			
			901-7135	관 리 부 장	(직)996-5363		
			901-7136		901-7103		
			901-7137	부속실	901-7103		
			901-7138	평 가 과	과 장	901-7160	
901-7130	평 가	901-7161					
901-7140	901-7162						
901-7141	해 외	901-7163					
901-7142	901-7164						
901-7143	국 내	901-7165					
901-7144	901-7166						
부	실	901-7145	관 리 과	과 장	901-7170		
		901-7146		조 직	901-7171		
		901-7147		관 리	901-7172		
				자 료	901-7173		
				관 리	901-7174		

실과명		전화번호	실.과명	전화번호		
관             리             부             과	관 리 과	자료 (일반) 901-7175	서             무             과	과 장	(직) 977-3972	
		열람실 (불은) 901-7176			901-7110	
		전문위원 협의회		901-7177	서 무	901-7111
	과 장	901-7180		901-7112		
	운 관 리	자 료		901-7181	경 리	901-7113
		관 리		901-7081		901-7115
	전 시 운 영	전 시		901-7182	관 리	901-7116
		운 영		901-7082		901-7117
		상 담		901-7183		901-7118
	영 안 내	안 내		901-7083	교 환 실	901-7114
		기 기		901-7184		901-7020
		조 정 실		901-7184		901-7190
	자 료 실	자 료 실		901-7185	당 직 실 현 관 수 위 실	901-7166
		안 내		901-7186		901-7030
안 내		901-7187	901-7040			